

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힘:
마음을 움직이는 선함에 대하여

영양 **力**



웹진과 앱으로 만나는 월간 <이정>

월간 <교정>을 더 편리하게 만나는 방법!
웹진과 앱으로 접속 후 구독 신청하면 매월 새로운 소식이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01

웹진 바로가기



02

모바일 앱
설치 바로가기



지금 구독신청 하면?

추첨을 통해 따뜻한 커피 쿠폰을 선물합니다! 웹진과 앱에서 만나요!



3월호 <교정>의 테마는 영향력입니다. 나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힘은 서로의 영향력에서 나옵니다. 교정인이 가진 영향력은 세상을 옳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여코너 신청과 독자 의견 송부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정 2020년 3월호(통권 526호) 64권 3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부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유튜브 주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잇는다

04
인트로

06
테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노하우

08
피플

시인 나태주

12
포커스

소프트파워 시대,
문화콘텐츠의 영향력



희망을 짓는다

16

소원을 말해봐
청주교도소 양철화 교사의
가족 나들이

20

교정이 쓴다
특별 홍보 편

내일을 열다

22

즐거운 씬표
독립운동의 뜨거운 역사를 찾아

26

힐링타임
예술은 선순환입니다

28

심리학 열전
자아가 약할수록 물질에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

30

보라미, 보드미와 함께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3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정직 공무원의 고민상담소

34

맛남의 교정
따뜻하고 든든하게, 콩나물 김치국밥

36

방구석 1열
가족이 함께 보기 좋은 영화

38

헬시라이프
홈레이닝으로 면역력 높이기



40

트렌드이슈
코로나19 비상, 현황부터 대응까지

44

전국 교정인 자랑
직업훈련교사 후기

48

희망의 백일장
깊이 반성합니다

50

교정리포트

56

NEWS
본부소식 & 일선기관 소식

63

모범공무원 소개

64

참여 안내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크고 작은 집단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죠.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의 옳은 행동은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릇된 행동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간혹 남의 말에 너무 휘둘리는 건 아닌지
걱정될 때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소통 방식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

교정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은 교정인을 위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Influence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노하우

우리는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 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배우자, 직장동료 등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낮은 사람들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일상의 평범한 만남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점 점원이나 은행 창구 직원과 짧은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루를 언짢거나, 즐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하루가 될지는 전적으로 나의 몫이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목록을 작성하라

사람마다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는 각자 다르다. 하지만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효과적으로 남의 삶을 움직이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자신의 삶에 가치를 더해준 사람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업적을 남긴 유명인, 주변 지인, 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목록에 쌓일 것이다. 그리고 왜 작성되었는지 생각해보자. 각각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 나의 행동이 수천 명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두세 명의 동료나 가족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영향력의 수준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매사에 진심으로 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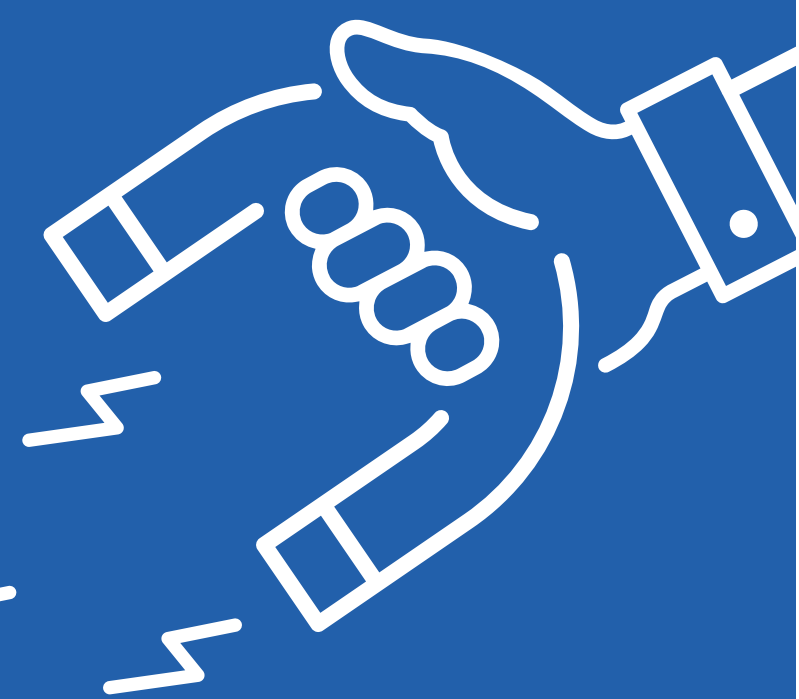
진심은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에서도 업무를 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 진심은 존경, 위엄, 신뢰를 비롯한 여러 덕목의 기초가 된다.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반복이 되면 언젠가는 그 몫이 되돌아온다. 일시적으로 얻은 영향력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이다. 진심은 집의 기초와도 같다. 기초가 튼튼한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다. 큰 잘못이 없는 한 문제가 없으며 작은 잘못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인격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한순간에 드러날 뿐이다. 매사에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

긍정적인 영향력은 타인에게 가치를 더해준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삶에 가치를

더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줌으로써 아이가 책을 좋아하도록 도움을 준다. 부모가 거리의 쓰레기 줍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줌으로써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은 옳지 않음을 아이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 나의 행동이 수천 명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두세 명의 동료나 가족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영향력의 수준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더라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영향력의 수준이 낮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수준을 높여 남을 돕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교정인 역시 매 순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나 자신은 동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그것이 앞으로 교정인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우리네 시린 손을 잡아주는, 지친 마음을 와락 안아주는 詩

시인 나태주

돌아보면, 우리네 삶은 누군가 응원해주고 부축해주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닐는지. 등단 50주년을 맞은 시인 나태주 선생의 시가 그렇다. 우리가 까맣게 잊고 지내던 희망과 사랑, 설렘을 노래하며 시린 손을 슬며시 잡아준다. 위로하는 시로 선한 영향력을 선사하는 나태주 선생을 마주했다.

인생의 봄을 노래하는 시인

어느새 봄이 가슴팍까지 치달았다. 충남 공주에도 봄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꽃눈이 얼굴을 내밀고 훈풍이 나부끼고 있었다. 더딘 속도로 마침내 당도한 이 계절. 풀꽃문학관에서 그를 마주했다.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선 번의 봄을 맞이한 나태주 선생이다. 올해 등단 50주년을 맞은 소회를 물었다.

“돌아보니 작은 것들이 모여 50년을 만들었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겹겹이 쌓여 한 덩어리가 된 거죠. 인생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 말이에요. 무엇보다 시인으로서 선한 의지를 지니려 노력했는데, 어느덧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나태주 선생은 194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1963년 공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까지 43년간 초등학교 교단에서 활동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시집과 산문집을 펴내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간결한 문장 안에 담긴 포근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희망과 사랑을 노래하는 중이다. 특히 ‘풀꽃’은 온 국민에게 큰 울림을 준 시로 남아 있다. 2012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현판으로 내걸린 후, 시민들이 직접 뽑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시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다.’

-시 '풀꽃'

좁고 긴 계단을 오르는 혹독한 생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내려앉은 봄별 같은 시어. 일흔을 넘긴 시인은 자신의 시가 되레 작고 소박하기에 사랑받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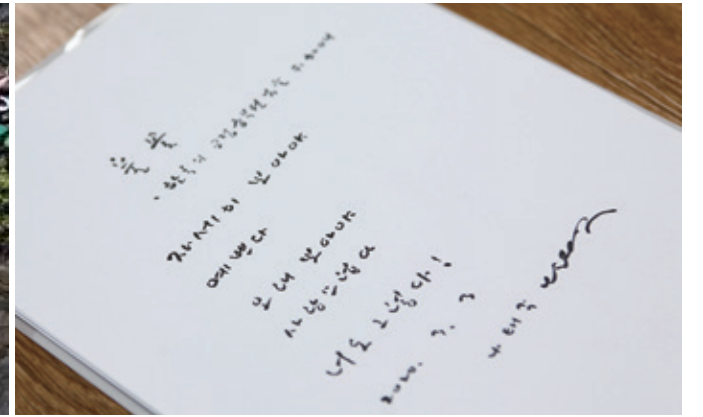
“시는 짧고, 쉽고, 단순하고,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작고 소박한 제 시에 마음을 연 것 같아요. 시에는 계급이 없어요. 시는 한 세대의 전유물도 아니죠. 보편성을 지닌 시가 세대를 막론하고 읽힌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시를 계속 쓸 수 있는 삶이 크나큰 축복이죠.”

위로와 치유의 언어

시력(詩歷) 50년의 시인은 시의 바람직한 역할로 위로를 손꼽는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변화’와 ‘속도’에 상처를 입은 독자들에게 위로를 건네야 한다고, 새로운 현상으로 꽉 채워진 사회 즉 ‘하드웨어’와 달리 개인의 내면 ‘소프트웨어’는 텅 빈 채로 남았다. 빈 공간을 예술과 문화로 채우고 싶어 읽을거리를 찾는 이들에게 시가 오롯이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시인은 늘 독자를 생각해야 해요. 꽃꽃문학관을 찾는 멀리서 온 손님들도 마음이 고달파서 왔다고 해요. <꽃꽃> 중 핵심 구절은 ‘너도 그렇다’입니다. 예전에는 ‘나만 그렇다’였는데, 이제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돌아봐야 하죠. 상대방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며 아껴야 합니다. 서로의 사이에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사랑하고자 한다면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나태주 선생의 시는 평범한 일상 그리고 주변의 소담스러운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그의 시를 읽을 때마다 내면을 말갱게 정화하는 기분을 얻는 건 그 힘 때문일 거다. 그가 시를 쓰는 과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길을 가다가, 꽃을 들여다보면서, 지하철을 타는 와중에도, 일상 속에서 영감이 떠오를 때면 휴대폰 메모장에 시를 쓴다. 그러다 누군가가 떠오르면 문자 메시지로 시 한 편을 전송한다.



“성장의 첫 번째 화두는 소통입니다. 시인이 독자와 소통하는 것은 기본이지요. 책장 안에만 머무는 시집, 소통이 안 되는 시는 죽은 시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시는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시를 동경하는 동시에 어렵고 난해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나태주 선생은 시를 음악과 그림을 대하듯 마주하라고 당부한다. ‘따지지’ 않고 그저 ‘느끼길’ 바란다. ‘시’라는 강물 위에 ‘마음’이라는 종이배를 띄우듯, 시와 내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가만히 느끼면 될 일이다.

가까이, 곁에,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품은 나태주 선생은 꾸준한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또한 독자와 가까이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학교와 기관, 지자체 등 전국 곳곳을 찾아 독자들과 함께한다.

“성장의 첫 번째 화두는 소통입니다. 시인이 독자와 소통하는 것은 기본이지요. 책장 안에만 머무는 시집, 소통이 안 되는 시는 죽은 시라고 생각해요. 독자들과 만나는 시간은 매우 자연스럽게 필요한 일이지요.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으로 독자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어릴 적, 겨울철 한밤중에 화장실에 갈 때면 누나가 함께할 때처럼요. 불일 보는 동생을 기다려주는 누나 같은 모습이 시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살기 위해 시를 쓴다는 나태주 선생은 새로운 창작시집 출간을 앞두고 작업에 몰두하는 중이다. 어떤 작업이든 ‘최초’이자 ‘최후’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기회는 ‘또 있다’가 아니라 ‘두 번은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원동력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편지를 쓰듯, 교정 공무원들을 위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강연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언젠가 교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다소 딱딱하고 경직된 자세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민이 안전하도록 길을 살피는 어려운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늘 교정 공무원들에게 신세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된 업무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귀한 사람이라 여기고 스스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오후의 별이 내려앉은 뒤뜰, 발밑 할미꽃의 안위를 살피는 나태주 선생이 손을 꼭 잡고 인사를 건넨다. 이제 발을 돌보러 가야 한다는 그의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해사한 웃음이 번진다. 그를 닮은 시어를 읊조리고 곱씹어보길, 하여 까맣게 잊고 지내던 희망과 설렘을 재발견해보길, 이내 작은 행복이 일상에 찾아들 테니.



소프트파워 시대, 문화콘텐츠의 영향력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시대, 한 사회를 풍미하는 콘텐츠가 있기 마련이다. 문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낸다.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라. 그 힘은 문화 소통에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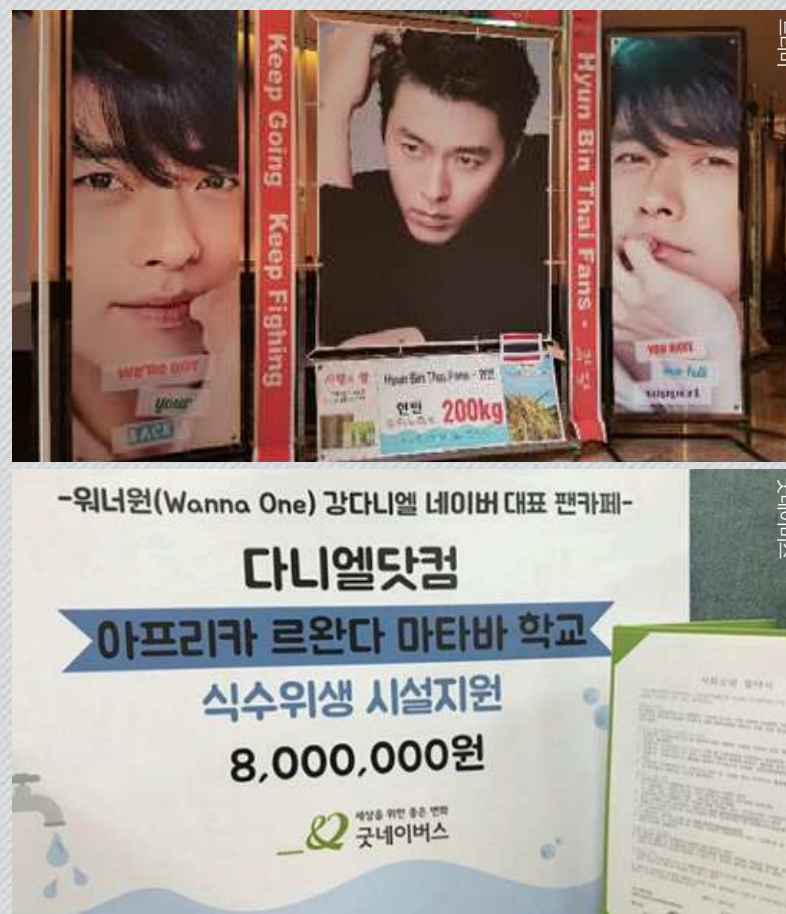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다

Meme

메신저 등으로 온라인에서 대화할 때, 내 감정을 화룡점정으로 마무리 짓고 싶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바로 '짤(짤림방지의 줄임말)'이다. 상황에 딱 맞는 짤 하나가 열 이모티콘 안 부럽다. 눈길을 사로잡는 이미지 속 주인공은 일반인부터 대중스타까지 다양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밈(Meme)'이라고 한다.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모든 문화 현상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글귀, 이미지, 동영상 등을 의미한다. 바야흐로 '밈'이 대중문화를 만들고 이끌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시대가 되었다.

가수 이애란의 노래 '백세인생' 중 '못 간다고 전해라'라는 가사 자막이 있는 캡처 이미지는 긴 문장을 써보내는 대신 간편하게 사용하기 충분하다. 이 짤이 뜨기 시작하면서 이애란과 그의 노래는 이모티콘으로 출시되고 실시간검색어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2019년 영화 '타짜 3'이 개봉하면서 배우 김응수의 '곽철용' 짤이 인터넷에 공유되었고 순식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배우 김영철도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연기한 김두한이 미군과 협상하는 장면의 밈으로 이제는 유치원생도 아는 '사팔라 아저씨'가 되었다. 단 한 장의 사진, 즉 짤 덕분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문명의 시대를 이끌고 만들어가는 것은 '단 하나의 손가락'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는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이다. 콘텐츠의 힘은 대중으로부터 나오며 관심과 사랑이 모일수록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모두가 함께 즐길수록 힘이 커지는 문화콘텐츠. 즐거움의 끝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해본다.



Fandom

선한 영향력은 계속된다

1990년대 서태지, H.O.T. 등의 등장으로 '팬덤'이 나타나고 다양한 팬덤 문화가 생겨났다. '팬덤'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 현상이다. 생일과 같은 기념일에 맞춰 일정 금액을 모아 선물을 보내곤 했었는데 이를 두고 경쟁을 부추긴다며 팬 문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팬덤 사이에서 고가의 선물 대신 건강한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방한용품 및 생필품을 후원하거나 쌀 화환과 현혈증, 나눔운동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국내 팬들뿐 아니라 해외 팬들의 참여도 늘어나면서 글로벌 선행을 진행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도서관, 우물, 숲을 조성하여 글로벌 선행에 앞장서고 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봉사과 재능기부로도 선한 영향력은 계속된다.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유기견 보호소, 복지관 봉사활동을 하며 팬들이 먼저 숭순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연예인에게 열광하는 존재가 아닌 오랫동안 함께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서, 소비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존재가 됐다.

유튜브 속으로
뛰어들다



BANGTANTV 유튜브 채널 Special Trailer |
BTS: Burn The Stage 동영상 화면 캡처

문화콘텐츠 중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가 음악이다. '음악은 만국 공통어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말은 언젠가부터 상식으로 통하게 되었다. 특히 케이팝(K-pop, 한국의 대중음악)의 인기는 날로 치솟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2000년대 초 중국, 일본, 태국 등 동아시아에서 시작해 2010년대 유럽, 남미 등으로 확대됐고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활약으로 케이팝은 정점을 보여준다. 이제 세계 어디서든 케이팝 팬을 발견할 수 있고, 케이팝에 맞춰 춤을 추는 이들을 볼 수 있다. 케이팝에 대한 관심은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케이팝으로 시작된 관심이 한국 드라마를 향하기도 하고, 한국의 쇼핑, 한국의 뷰티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유튜브의 역할이 크다. 유튜브는 현대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면서 대중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을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콘텐츠가 공유되면서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대중은 이를 바탕으로 2차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더욱 확산시킨다. '무조건 소비'가 아니라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는 소비자가 늘면서 유튜브는 날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생산될 콘텐츠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유튜브는 또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주목된다.

고소한 치즈같이,
달콤한 초콜릿처럼

가족 사랑이 피어나다

청주교도소 보안과 양철화 교사의 가족 나들이



봄을 앞둔 어느 날, 양철화 교사와 가족이 전주로 체험 여행에 나섰다. 네 식구가 오순도순 모여 앉아 치즈와 초코파이를 만든 하루. 행복이 겹겹이 쌓이고, 순도 100%의 가족 사랑이 피어났다.

네 식구의 '선물' 같은 하루

온 가족이 함께 외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설레는 걸까. 이제 막 전북 전주에 당도한 양철화 교사 가족의 얼굴에 기대감이 서려 있다. 오늘 하루는 양철화 교사가 가족을 위해 마련한 선물이다. 두 아이 육아에 바쁜 아내를 위한 힐링 여행이자 아이들을 위한 체험 나들이인 셈이다.

“얼마 전까지 업무로 많이 바쁜 탓에 가족들과 여행을 하지 못했어요. 또 지난해 둘째가 태어난 이후로 외출이 쉽지 않았죠. 첫째가 워낙 외부활동을 좋아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육아하느라 바쁜 아내에게도 여행 기회를 선사해주고 싶었어요. 둘째가 태어난 이후로 이렇게 멀리 여행 온 건 처음이에요. 우리 네 식구에게 온전한 휴식이 되길 바랍니다.”

아내 김영미 씨와 첫째 예지, 그리고 막내 예준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난 양철화 교사가 이번 여정의 설렘을 드러낸다. 가족은 1박 2일 전주 여행을 즐길 참이다. 가장 먼저 임실 치즈와 전주 초코파이 만들기 체험에 나설 계획. 뜻밖의 도전에 아내 김영미 씨도 설렘을 드러낸다.

“전주 여행은 처음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행을 해보자는 생각에 체험을 떠올렸어요. 아침부터 예지도 신났는지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라고 묻더라고요. 예준이도 잘 웃으니까 좋습니다.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켓바퀴처럼 돌아가던 일상에 선물처럼 다가온 여행. 가장 먼저 네 식구는 치즈 만들기 체험에 나선다.

오순도순, 손끝으로 만끽하는 체험

“치즈는 8000년 전에 사막에서 만들어졌어요. 세상에는 무려 2,000종이 넘는 치즈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유를 사용해 손으로 직접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 거예요.”

전문 강사가 아이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곁들이자 예지가 흥미로워하며 집중한다. 위생 장갑을 끼고 ‘키드’라는 우유 응고물을 깎두기 사이즈로 자른다. “요거트 냄새가 나요.” “냄새부터 고소해요.” 자른 키드를 뜨거운 물에 넣고 주물렀다 늘이기를 반복한다. 마치 슬라임을 가지고 놀 듯 즐겁게 임하는 가족. 치즈를 함께 잡고 각자 자신 쪽으로 잡아당긴다. 주욱~ 옛가락처럼 늘어나는 치즈의 모습에 모두 신기한 표정이다. “우와! 막 늘어나요.” “한 번 더 해봐요!” 줄였다 늘이기를 여러 차례. 키드가 공기와 만나 수만 가닥의 결이 생기면서 점차 쫄깃해진다. 마치 막으로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굳히니 치즈가 완성되었다.

갓 만든 치즈는 즉석에서 맛보는 것이 제맛. “정말 고소하고 쫄깃해요.” “맛있는데요?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네요.” 유모차에서 식구들을 지켜본 예준이도 즐거운지 반짝반짝 눈망울을 빛낸



“말하지 않아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새삼 소중합니다.”

다. 그런 막내의 모습을 보고 세 식구가 환하게 웃는다.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행복이 더없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부터는 제게 귀중한 존재가 함께하는 사실이 매 순간 신기하고 감사해요. 일상 속에서 다 같이 함께 웃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얼마 전, 집 거실에서 와이프를 등에 업은 후 그 위로 예지를 업은 적이 있어요. 마냥 좋아서 모두가 한바탕 웃기만 했거든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새삼 소중합니다.”

양철화 교사는 대학 동아리 후배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다. 홍성에서 물리치료사로 활동했던 아내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지난 2015년에 결혼에 골인했다. 바람직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다짐했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움튼다. “아내가 엄마 역할을 훌륭히 해주니까 참 든든합니다. 제가 훈육을 담당하는데, 아내는 다정다감하게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지혜롭게 대합니다. 저만 잘하면 된답니다”라며 멋쩍은 웃음으로 진심을 전한다.



“특별한 체험을 가족과 함께해서 더욱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행복을 겹겹이 쌓은 하루, 미래를 꿈꾸다

다음은 초코파이 만들기 차례. 전주 명물로 알려진 초코파이를 직접 만들기로 한다. 파이 한쪽에 딸기잼과 크림을 짜서 넣고 다른 한쪽 파이로 덮자 ‘맛있는 미술 시간’이 시작된다. 뚜껑 위에 초콜릿 시럽으로 그림 그리기에 나선다. 엄마는 과감하게 획획, 아빠와 예지의 얼굴과 표정을 그린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려야 잘 되는 것 같아요(웃음). 남편의 안경도 그려야겠어요.” 아빠는 운순한 양을 그리고, 예지는 별, 도형 등 작은 손으로 정성스레 그림 그리기에 열중이다. 이 모습을 놓칠세라 카메라로 열심히 담은 엄마 또한 마냥 행복하다.

“최근 들어 예지가 미술 활동을 흥미로워하더라고요. 예준이는 평소 낯을 가리는데 기분이 좋은지 암전하네요. 평소 접하지 못했던 특별한 체험을 가족과 함께해서 더욱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잔잔한 시간으로 힐링합니다. 앞으로도 다 같이 여행을 자주 다니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어느새 짧지만 풍성한 체험 시간이 마무리되었다. 양철화 교사는 치즈와 초코파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족의 미래를 꿈꿔 본다.

“훗날, 아이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만의 삶의 가치관과 신념을 정립하고 이를 잘 지켜나가는, 변함없는 사람으로 자란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서로 모든 걸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해요.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는 가족이요. 앞으로 저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을 내보이는 일. 여행의 마법이란 이런 게 아닐까. 특별한 체험을 함께한 시간. 치즈처럼 고소하고, 초콜릿처럼 달콤한 가족 사랑이 영글었다. 오늘의 추억이 가족의 앞날을 더욱 찬란하게 빛내줄 테다. 지금껏 그랬듯이, 그리고 오늘처럼.

우리 아이에게 교정이 쓴다!

—특별 홍보 편

코로나19로 전례 없이 개학이 3주나 연기된 2020년 3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엔 모두 비상이 걸렸다. 차갑던 공기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바깥에 나가 놀 수도, 친구들을 만날 수도, 학교나 학원에 모일 수도 없다. 이런 때일수록 나중을 기약할 수밖에. 그 '나중'을 '교정이 쓴다'와 함께하면 어떨까? 자녀와 자녀의 친구들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참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따르기 위해 3월의 '교정이 쓴다'는 쉬어갑니다.

1 - '교정이 쓴다'에 신청하려면?

방법 1

- ① 스마트폰으로 하단의 QR코드에 접속한다.
- ② 해당되는 항목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한다.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뒤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방법 2

- ① <교정> 맨 뒤에 붙어있는 엽서를 잘라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다.
- ② 편집실로 잘 배송되기를 기대하며 우체통에 넣으면 끝!

*사연을 보내준 교정인에게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도 신청 받습니다.



2 - '교정이 쓴다'에 참여하게 된다면?

내 아이와 친구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하고 '교정 공무원'에 대해 소개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전 참여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세요!



독립운동의 뜨거운 역사를 찾아

경남 밀양

인구 10만이 조금 넘는 소도시 밀양은 걸로 보기엔 참 잔잔하다. 영남루(보물 147호)와 밀양강으로 대표되는 서정적인 자연 풍광과 경제개발계획에서 벗어나 여전히 예스러운 동네 풍경. 걸로 보는 밀양은 그저 정적이다. 하지만 그 안으로는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100여 년 전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독립운동가들이 들려준다. 3월에는 밀양 땅을 찾아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보자.



약산 김원봉 생가터에 문을 연 의열기념관



영남 최초의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난 밀양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 김원봉 역할을 맡은 배우 조승우의 입을 통해 전한 짧고도 강렬한 대사 한 마디. 1200만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속 한 마디로 인해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김원봉은 영화 <밀정>에도 등장하고 작년에는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이몽>이 방영됐다.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대표적인 독립투사로 손꼽히는 약산 김원봉. 일제가 당시 김구에게는 60만 원, 김원봉에게는 1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는 설이 있다. 그만큼 김원봉은 일제에 위협적인 인물이었다. 의열단을 조직하고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낸 그였다.

이렇듯 혁혁한 업적을 남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 이름이 친숙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김원봉은 1948년 남북연석회의 때 북한으로 넘어가 잔류한 월북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의 월북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친일 경찰에서 대한민국 경찰로 변신한 노덕술이 해방된 땅에서 김원봉을 체포해 고문한 것. 당시 김원봉은 “조국 해방을 위해 일본 놈과 싸울 때

도 이런 수모를 당한 일이 없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약질 친일파 경찰 손에 의해 수갑을 차다니 이럴 수가 있냐”며 사흘 밤낮을 통곡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 뜻을 같이하던 여운형마저 암살되자 김원봉은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월북 후 북한에서 고위직을 역임했지만 결국 김일성에 의해 숙청당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고도 결국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잊힌 비운의 독립운동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념과는 별개로 그의 항일 투쟁의 공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그런 시대적 흐름이 반영됐을까. 예전에는 차마 이름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웠던 김원봉을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만나게 됐고 2018년에는 김원봉 생가터에 의열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김원봉은 1898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항일 정신이 투철했던 그는 밀양공립보통학교 재학 중 일장기를 화장실에 처박아버린 사건으로 학교를 그만뒀다. 이후 독립운동에 큰 뜻을 품고 중국으로 건너가 1919년 의열단을 조직했다. 의열단은 항일 무장투쟁을 지향하며 식민 지배 기관 폭파, 식민 지배





- ❶ 3.13밀양만세운동의 현장이 된 밀양 관아지
- ❷ 의열기념관 옥상 풍경
- ❸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기념해 세운 의열기념탑
- ❹ 의열단이 탄생한 반씨 주택을 재현한 코너
- ❺ 해천항일운동테마거리

자와 반역자 처단 등의 활동에 집중했다. 이에 박재혁의 부산 경찰서 폭탄투척의거, 최수봉의 밀양경찰서 폭탄투척의거,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투탄의거, 나석주의 동양척식회사 및 식산은행 폭탄투척의거 등 괄목할만한 거사를 실행했다. 흔히 '밀양 없는 의열단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의열단 탄생에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열단 창립 관련 인사 중 김대지, 황상규, 김원봉, 윤세주, 한봉근, 김삼윤 등이 모두 밀양 출신이다. 의열기념관이 밀양에 세워진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다.

또 다른 밀양 사람 윤세주와

밀양 땅에 묻힌 박차정

기념관은 규모는 작지만 2개 층에 걸쳐 김원봉과 의열단의 활약에 대해 전시한다. 1층 대형 스크린에서는 김원봉이 연설하는 영상이 나온다. 그의 조국 독립에 대한 열정이 보는 이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1층에서는 의열단의 탄생 배경과 의열단 공약, 의열 투쟁 주요 연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2층에는 김원봉과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모여 의열단 결성을 결정한 '반씨 주택'을 재현한 코너가 있다. 당시 그들의 대화를 재현한 오디오도 흘러 나온다. 김원봉 외 다른 의열단원을 소개하는 공간도 놓치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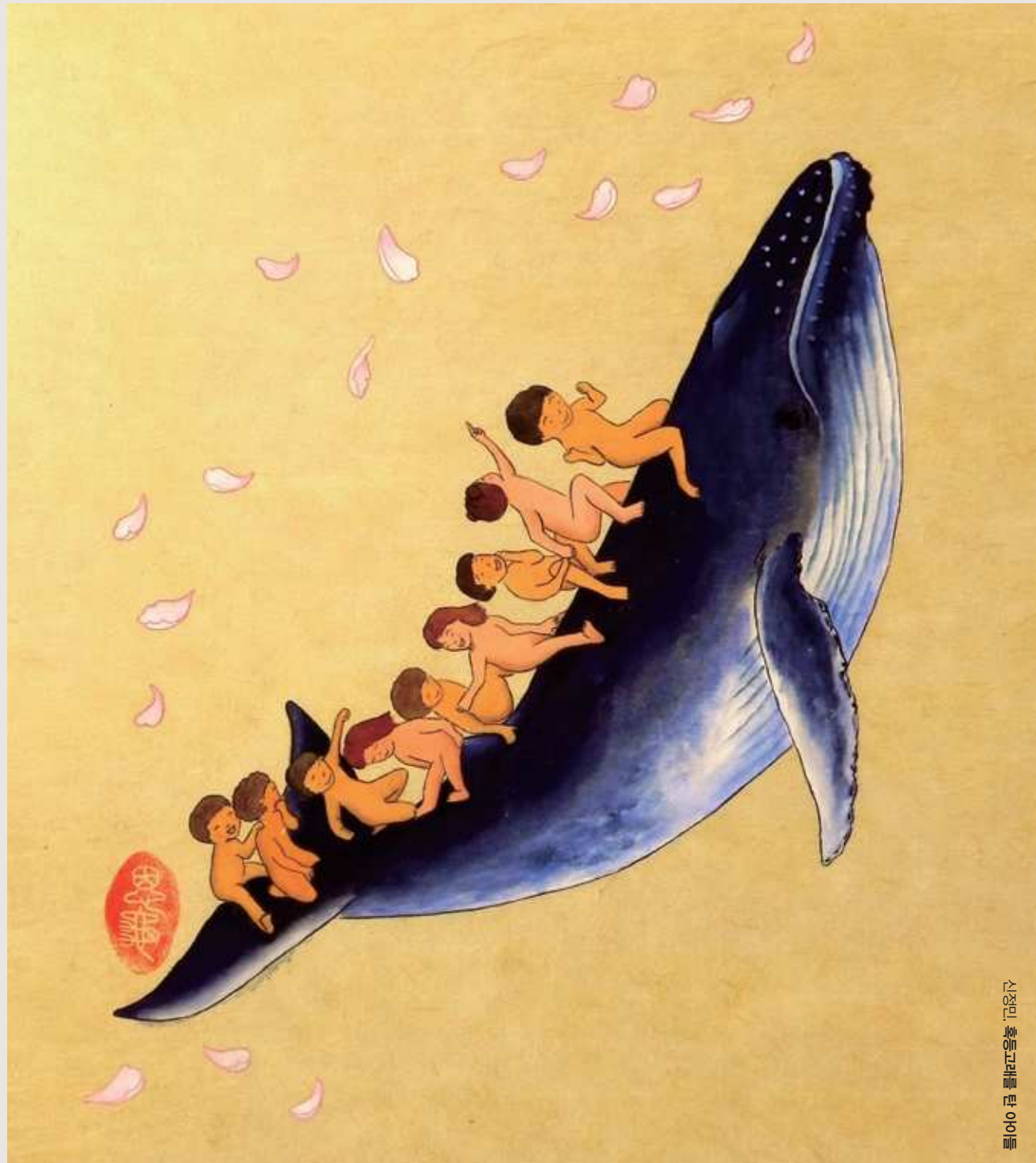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많은 이름이 적혀 있다. 그중 김원봉과 함께 기억해야 할 이름, 윤세주와 박차정이 있다. 의열기념관 즉 김원봉 생가터 바로 인근에 윤세주 생가터가 있다. 둘은 바로 이웃에 살며 뜻을 같이한 막역한 친구였다. 윤세주는 어릴 때 김원봉과 함께 일장기를 화장실에 버린 인물로 1919년 3월 13일 밀양만세운동을 주도한다. 이 일로 일제의 검거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후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 창립에 참여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친다. 하지만 1942년 일본군과 대대적인 결전을 벌이다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만다. 지금 윤세주 생가터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서 있고, 그 앞에는 2019년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기념해 세운 의열기념탑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 여성 독립운동가인 박차정도 주목해야 한다. 박차정은 항일 여성운동 단체인 근우회 회원으로 여러 활동을 펼치다 일본에 체포됐다 병보석으로 풀려난다. 이후 중국으로 넘어가 김원봉과 결혼하고 의열단 핵심 요원으로 활약한다. 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서 여자부 교관으로 활동하는 등 민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운동에 앞장서다가 일본군과의 교전 중 입은 총상 후유증으로 1944년 순국한다. 김원봉은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박차정의 유골을 품고 와 밀양 땅에 묻었다. 의

열기념관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박차정 묘지가 있다. 묘지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다. 그나마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소박한 나무 표지판이 도움을 준다. 좁은 길 끝에 무덤이 있다. 독립운동유공자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훈한 의사의 묘지라기에는 초라한 모양새다. 순간, <친일인명사전>에 실린 친일 인사 수십 명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다.

밀양 사람들의 뜨거웠던 독립운동

의열기념관 주변은 해천항일운동테마거리로 조성되어 있다. 복개 하천인 해천을 중심으로 밀양의 독립운동사를 보여주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김원봉이 창설한 독립무장부대 조선의용대 창립 기념사진, 김원봉과 박차정을 담은 벽화 등이 보인다.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명단에는 8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얼마나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고장인지를 보여준다. 점필재 김종직과 사명대사 같은 인물을 낳은 밀양은 '충절의 고향'이라는 전통적 정신을 기반으로 동화학교, 개창학교, 화산의숙 등의 신식 학교에서 민족 교육이 이뤄지면서 독립운동의 근간이 될 인재를 대거 양성했다. 1919년 3월 13일 영남 지역 최초의 대규모 만세운동이 밀양 땅

에서 일어난 것도 당연해 보인다. 고종의 인산일을 앞두고 상경한 윤세주와 윤치형은 탑골공원에서 열린 3·1만세운동에 참여한 후 밀양으로 돌아와 스승인 전홍표와 논의해 밀양 장날 대규모 밀양만세운동을 벌였다. 의열기념관에서 도보 5분 거리의 밀양 관아지(경상남도 기념물 270호)가 밀양만세운동의 현장이다. 당시 밀양군청 건물이 있었고 지금의 관아 건물은 최근에 복원했다. 관아지 앞에는 밀양만세운동 현장이었음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다. 밀양에서는 이날의 만세운동을 비롯해 총 8번의 만세운동이 전개됐다. 이렇듯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밀양의 독립운동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면 의열기념관에서 약 1.9km 떨어진 밀양독립운동기념관까지 방문하길 권한다. 우리나라와 밀양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야외에 설치된 선열의 불꽃과 흉상도 찬찬히 둘러보자. 정부 서훈을 받은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와 밀양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김원봉과 전홍표의 흉상 앞에서 한없이 경건해진다. 영화 속 대사였지만 왜 굳이 극 중 김원봉이 "나 밀양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했는지, 밀양을 돌아본 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신정민 <흑등고래를 탄 아이들>

예술은 선순환입니다

깨박쟁이 아이들이 고래를 타고 있습니다. 커다란 흑등고래는 잔뜩 신이 났어요. 한껏 헤엄치며 “호오라이오” 고래고래 노래를 부릅니다. 아이들도 함께 고래 노래를 부릅니다. 바다는 푸른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세상이 아이들 같은 희망으로 일렁입니다. 신정민 작가의 <흑등고래를 탄 아이들>은 전국 보육원에 가장 많이 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앞에 서면 누구라도 바다 같은 미소가 출렁이지요. 마음 한편을 흑등고래에 태우고는 그림 속 아이들 웃음을 아주 조금 닮아갑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내 마음에 따뜻한 감성이 쌓이는 순간은. 내 삶에 노오랗게 온기가 퍼지는 순간은. 단지 그림 앞에서 가만히 웃었을 뿐인 그 시간에 말이지요. “저 여기에 10년도 더 살았는데, 이 식당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워진 것은 처음이에요!” 덩치 큰 남학생이 그림 앞에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천의 한 보육원에 그림 설치를 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4년 전부터 전국의 보육원에 그림을 걸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자본과 예술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졌었는데 봉사를 하면서 마음은 다시 튼튼해졌습니다. 예술의 가치는 선한 영향력에 있지요. 그 본질을 깨닫게 해준 것이 예술 봉사였습니다. 보육원들에는 제대로 된 그림 한 점이 없더라고요. 복지가 아직까지 문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그림들을 모으고 기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화가들도 좋은 일이라며 선뜻 함께해 주었고,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남학생이니까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시설에 들어왔겠네요. **덩치는 컸지만 웃는 얼굴은 소년 같은 아이가 남루한 식당 중앙에 건 커다란 고래 그림 앞에서 입을 못 다물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밥 먹을 때마다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고래 위에서도 맨 앞에서 제일 신난 아이를 닮았지요. 우리도 그 순간 마음에 온기가 가득히 퍼져 나갔습니다. 짙한 감동이 밀물 썰물 했지요. 지금까지 전국 보육원 50군데쯤 그림들이 기증, 설치되었습니다. 보육원을 선정하고, 미리 답사를 가고, 잘 어울리는 그림들을 골라 설치를 가기까지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나설 때도 마음은 기꺼이 즐겁고 한껏 따뜻합니다. 그림을 보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행복한 탄성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크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감성과 공감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감성도 공감도 몹시 일상적인 것으로 생활 저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술이 다 무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누구라도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멈춰선 곳이 그림 앞이라면 더할 나위 없지요. 그림을 들여다보며 흑등고래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구나, 고래를 탄 아이들의 표정 좀 봐봐, 그림 속에 머무르는 순간에 마음엔 순하고 따뜻한 것이 쌓입니다. 그 선하고 몽클한 경험이 계속해서 쌓여 가면 우리의 체질은 달라집니다. 행복해지기 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 그 본질을 느끼는 마음이 크고 깊어지니까요.

그 남학생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행복’하다고도 했지요. 우리는 이렇게 조금 더 표현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마음을 드러내고 공감해주고 안아주어야 하죠. 예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정민 작가는 원래는 고래 동화를 쓰는 작가입니다. 처음엔 글로만 쓰다가 상상을 고스란히 고래 민화로 표현한 것이지요. 작품 속에서 고래를 함께 타고, 한껏 웃고,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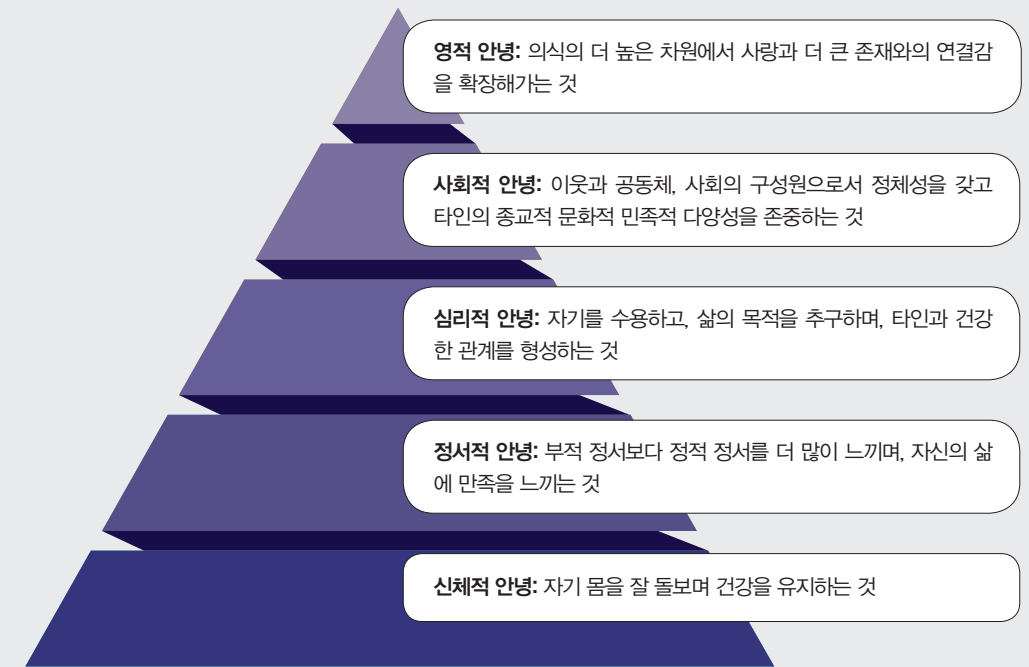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긍정보다 부정이 가깝고, 행복은 추상화처럼 잘 와 닿지 않고요. 우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요. 고래 그림 한 점으로 모두가 행복해졌듯이 예술의 선순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림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는 일, 가만히 미소를 짓는 일, 바로 그것이 시작입니다.

자아가 약할수록 물질에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



몇 년 전 상담실을 찾아온 40대 주부 C는 쇼핑중독이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었고, 얼마 전 둘째 아들마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탓인지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백화점 VIP 고객이었던 그녀의 집에는 사용은커녕 포장도 뜯지 않은 쇼핑백들이 쌓여갔다. 매장 직원의 환대 속에 이것저것 입어보고 신어보며 기쁨을 느끼는 데 도취 되어 사용하지도 않을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매장을 둘러보며 물건을 선택하는 과정과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까지의 시한부 행복에 서서히 중독되어 간 그녀의 일상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가 느꼈던 만족감은 집에 돌아와 쇼핑백을 집안 어딘가에 내려놓는 순간 휘발되었다. 유통기한이 짧은 이 행복은 너무도 쉽게 공허감으로 바뀌었고,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다시 쇼핑을 반복해야 했다. 경제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그녀였지만, 아무리 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삶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기만 하였다.

좋은 집 좋은 차를 갖게 된다면 누구나 기쁠 것이다. 그러나 물질의 소유가 주는 기쁨은 일주일만 지나도 현격히 줄어들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감퇴한다. C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명품매장을 돌며 신상 핸드백과 구두를 살 수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물질을 수단으로 행복에 다다르기에는 우리 인간은 매우 복잡한 유기체이다. 마음이 허전할 때 물질로 채우려 드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잠깐 발을 녹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옷장을 채운다고 마음이 채워지는 않으니 말이다. 아래 그림처럼 우리 인간은 결코 물질만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공허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사랑'과 '의미'라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따라서 불확실하고 어렵다. 반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물질은 확실한 만족감을 준다. 이런 까닭에 사랑이 고평수룩, 심리적으로 미성숙할수록 손쉬운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다. 물질이란 모름지기 자신이 적절히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정도까지



다양한 안녕(well-being)의 위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다. 아래 그림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양한 안녕의 위계를 나타낸 것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심리적으로 성숙한 지혜를 갖추어야 누릴 수 있는 행복이며,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는 이 모든 안녕이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한다. 주부 C와 같은 공허감을 느낄 땐 물질적 만족보다는 차라리 '신체적 안녕'을 추구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인다. 우리의 몸도 일종의 물리적 속성을 가진 개체라는 측면에서 몸을 잘 돌보고 필요한 물질을 적절히 취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 될 테니 말이다.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는 것, 적정량의 음식을 제때 먹는 것, 적절한 만큼 일하고 적절히 휴식을 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체적 안녕'을 통해 행복에 이르는 방편이 된다. 의식 주나 고용상태 또는 소득수준 등의 객관적 지표에서 다소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신체적 안녕'을 꾀한다면 정신건강을 위태롭게 할 위험을 낮출 수 있고, 행복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 자기(self)라 할 수 있는

몸은 우리 자신의 일부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외부의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만족을 누리하고자 하는 욕구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 내면, 즉 정신이 약하다는 방증일 수 있으며, 조절과 절제에 필요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일 수 있다. 더불어 본질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은 데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에 따르면,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정신적 측면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을 말한다. 자존감이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이 있기에, 남의 눈에 비치는 겉모습에 치중하는 어리석음이 유발되기 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듯도 하다. 그러나 기억하자. 자존감은 정신적인 면, 심리-내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둘 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자칫 외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에 치중하다 보면, 자아가 약해지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 결국 아무리 물질을 채워도 마음은 공허한,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야 마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우리 동네에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이 바뀌다- 교정시설이 뜰어온대!



우리 수진이는 요즘 동네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태권도 교실을???



네. 보내기로 결정한 뒤에 교정시설이 궁금해져서 참관신청을 하고 다녀왔는데요. 입구부터 제가 생각한 교도소와는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라요? 저도 참관할 수 있나요?

어릴 때 미디어에서 봤던 높은 담에 철조망 둘러쳐진, 무섭고 거리감 느껴지는 곳이 아니었어요. 대학 캠퍼스처럼 깔끔하더라고요. 지역주민이면 신청하고 참관할 수 있어요.



교정시설을 주민이 참관할 수 있다는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단체로 가볼까요?

그래요. 함께 가봐요.



이렇게 말끔한 곳이 교정시설이었다니, 가까이 와서 보니 더 놀라워요.

내부는 어떻게 더 궁금해지는데요? 들어가봅시다.



참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보안장비 설비로 보안 사각지대를 없앴어요. 수용자가 도주하거나 외부에서 침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감지센서를 중복 설치하고 정전되더라도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는 무정전 전원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각 수용 거실문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췄고, 드론으로 교정기관 내외부 순찰과 수용자 계호, 시설물 점검과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교정시설은 이렇게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요. 주민들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 역시 청결하고 시설 수준이 높네요. 막연히 낯고 노후화된 환경일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교정시설이 크게 발전한 결과, 수용자 관리 효율도 좋아졌습니다. 참관을 통해 직접 둘러본 소감이 어떠세요?



교정시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전하고 믿음직스러워서 거부감을 갖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참관하길 잘 했어요.

"이런게 매너리즘 일까요?"

교정직 공무원의 고민상담소

교정직 공무원으로 살면서 느낀 어려움, 스트레스가 있다면 익명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사소한 고민이라도 월간 <교정>이 해결에 보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따뜻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호에서 상담해주신 내용을 보고 정반대 상황인 저의 고민을 보내봅니다. 저는 근무기간이 10년을 훌쩍 넘긴 교정공무원입니다. 여러 지역의 교정시설에서 각 과를 돌아가며 웬만한 업무는 다 해봤습니다. 근무할 때 항상 긴장감을 놓지 않고 일하지만 젊은 신규 직원일 때만큼 열정에 차 있다는 느낌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고인물'이 된 것 같다고 할까요? 근무를 처음 시작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열심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요령도 없던 그 때보다야 지금처럼 숙련된 것이 물론 좋습니다만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공무원 생활에 안주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때때로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열정적인 마음가짐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From. 한때는 열정맨

한때는 열정맨님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셨다니, 현재 중간관리직급에 해당하는 경력을 쌓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동안 일을 배우고 조직에 적응하느라 바쁘고 숨찬 시간을 보내셨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때보단 느긋하게 주위를 돌아보고 둘러볼 여유가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이 느긋함과 여유를 두고 '고인 물', '매너리즘'이라 표현하시니 웬지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조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선생님의 고민을 읽으며, '이분은 지금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별로 티 내지 않고 하고 있겠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고인 물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지간한 일에 쉽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이고 또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다 겪어봤다고, 라고 쫓쫓거리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겉으로 잔잔해 보이지만 실은 머릿속 CPU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큰 그림을 보며 레이아웃을 잡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꼬여버린 일정을 하나씩 풀고, 쌓인 일을 착착 나누어 주위에 뿌립니다. 덕분에 일이 돌아가고 조직이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면 좀 곤란합니다. 오히려 일희일비하는 조직원을 다독이고 독려해야 할 위치입니다. 만약 경력 십수 년 차인 선생님이 매일같이 뜨거운 열정에 불타며 심장이 마구 두근거린다면, 다음번 건강검진 때 혹시 부정맥이나 고혈압은 아닌지 체크하셔야 할 겁니다.

40대 중반의 저는 가끔 옛날이 그리지만, 그렇다고 정말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의욕이 넘치고 체력도 넘치던 과거의 제가 탐나긴 하지만요, 저는 맨땅에 실컷 헤딩하며 2, 30대를 보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샅질했고, 열심히 깨졌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요령이 생겼고, 굳은살과 멧집도 얻었습니다. 요령 덕분에 시간 낭비가 줄었고, 시야는 넓어졌습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굳은살과 멧집은 저를 보호해주고, 크고 작은 아픔 앞에서 무디게 해줍니다. 때론 무뎌져서 아쉽기도 합니다. 저 역시 가끔 쓰는 '매너리즘'과 '고인 물'이란 자조적인 표현은 이런 아쉬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역시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떠올리는 건 짧게 끝내고, 오늘과 내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배운 걸 나눌 때입니다. 과거의 지나 선생님님처럼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열정적인 후배에게, 이왕 헤딩할 거면 어떻게 박아야 조금 덜 아픈지 알려줄 때죠. 저와 선생님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 형태가 바뀐 것이고, 발화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순간 다른 지점에서 다른 온도로 타오를 것입니다.

서로의 자리에서 함께 힘내요.



<참여 방법>



어떤 사연이든 누군가와 상담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익명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또는 QR코드 응모 페이지로 받습니다. 이름과 개인 정보는 기재하지 말고 고민만 작성해 보내주세요.

따뜻하고 든든하게

콩나물 김치국밥

콩나물 김치국밥은 전라도 지방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간편한 아침 식사 메뉴로도 좋고 뜨끈한 국물로 속을 달래고 싶을 때도 좋다. 콩나물에는 알콜을 분해하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니, 콩나물 김치국밥은 전날 과음을 했다면 더욱 추천하고 싶은 메뉴다.



 재료 (2인 기준)



물 1L, 다시육수팩 1개, 콩나물 200g, 김치 1/4쪽, 김치 국물 2큰술, 국간장 1큰술, 대파 1/4개, 다진 마늘 1/2큰술, 새우젓 조금(없는 경우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 한 개

 조리 순서



- ① 김치는 잘게,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썰어둔다.
- ② 다시육수팩과 김치, 김치 국물을 넣고 육수를 끓인다.
- ③ 육수가 끓으면 콩나물을 넣는다.
*콩나물을 넣은 뒤 뚜껑을 덮었다면 익기 전에는 열지 않는다. 중간에 열면 콩나물 비린내가 나기 때문. 콩나물이 다 익을 때까지 뚜껑을 열어두어도 된다.
- ④ 콩나물이 익으면 다진 마늘과 대파, 새우젓(또는 소금), 국간장을 넣고 끓인다.
*육수팩은 요리 완성 후 꺼내도 된다.
- ⑤ 국에 밥을 넣고 한소끔 더 끓이면 콩나물 김치국밥 완성!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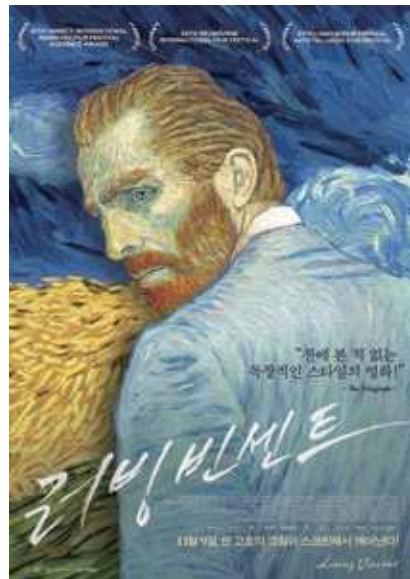


각종 요리의 재료로 흔히 쓰이는 콩나물은
고려 시대 초기부터 재배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타민C와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 몸 속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효과적이다. 콩나물 100g에는 약 800mg의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다. 또 양질의 섬유소가 풍부해 장을 건강하게 도와준다.
콩나물은 머리와 줄기가 적당히 통통하고 노란색을 띠며 검은 반점이 없는 것으로 고른다. 줄기가 무르거나 썩은 듯한 냄새가 나는 것은 좋지 않다.
구입후 바로 조리하는 것이 좋지만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콩나물을 담고 잠길 정도로 물을 넣은 뒤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조리할 때는 맑은 물에서 씻고 콩 껍질과 짓무른 부분을 제거한 다음 이용한다.

“서로 정답게 이야기 나눌, 그런 가족 아니잖아 우리”

코로나19 대비 특선 가족영화관 BEST 4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 온 가족이 정오부터 한 식탁에 모여 앉았다.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라도 해야 할 거 같은 어색한 일요일, 아니 평일 대낮. 그리고 낯선 아빠. “우리 딸! 요즘 수민이랑은 잘 지내지?” “아 뭐래 수민이가 누구야. 수진이겠지.” 이런 때 보기 좋은 가족 영화를 소개해 올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소강 국면을 맞이하길 바라며.



BEST 1 “감동, 재미, 교양을 한 번에”
러빙 빈센트(107분)

장르: 애니메이션(드라마) 감독: 도로타 코비엘라, 휴 웰치맨
출연: 더글러스 부스, 시얼샤 로넌, 제롬 플린

누구나 마음 속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그 기억은 각자의 심연 속 이리 저리를 부유한다. 따라서 온 햇살,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도 웅크려 누워 어둠에 안겨 있는 날. 영화 <러빙 빈센트> 속 빈센트 반 고흐(이하 빈센트)는 우리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넨다. 유년 시절의 아픔, 동생과의 애절한 우정, 가난한 무명 예술인의 비애 등. 빈센트가 삶을 대했던 태도를 보며 우리는 자세를 다잡고 조금 더 용기 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러빙 빈센트>는 그가 생을 마친 프랑스 오베르쉬르 우아즈에서의 애환을 주로 다룬다. 불굴의 예술혼으로 생을 이 어간 그에게서 당신의 가족 모두가 각자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 62,450장의 유화로 그려진 영화 <러빙 빈센트>는 10여 년에 걸쳐 그를 추억하는 화가들에 의해 완성됐다.



BEST 2 “주연 박정민, 장르 마동석”
시동(102분)

장르: 드라마(코미디) 감독: 최정열
출연: 마동석, 박정민, 정해인, 영정아

코미디 장르는 서먹한 관계를 녹여주는 토치(torch)요, 이야기거리를 달구는 술과 같다. 아무리 어색한 관계도 “마동석 잘 때 너무 웃기지 않았어?”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아 네...”라는 심심한 대답이 돌아와도 괜찮다. 풀린 어색함은 처음의 정적보다는 훨씬 편안하다. <시동>은 기존 마동석이 보유한 주요 성질인 귀여움과 유머를 수박 바처럼 알맞게 섞어 놓았다. 여기에 아이서 같은 알맹이가 곳곳에서 숨어있어 흥미진진하게 관람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관계를 익히며 서로를 아끼고 성장해가는 고택일(박정민)의 모습은 호밀밭의 파수꾼 속 홀든 콜필드보다 현실적이라 더 애정이 간다. 서로 이해하기 어려워 서먹한 가족이라면 함께 보기에 좋을 것 같다.



BEST 3 영화 “본격 호도 압박 영화”
강철이(108분)

장르: 드라마(액션) 감독: 안권태
주연: 유아인, 김해숙, 정유미

무릇 부모라면 ‘요즘 애들’의 근본 없는 인품에 차가운 비수를 날리기 좋고, 자식이라면 호도 클리셰에 온몸이 베베 꼬일 스크류바 영화 <강철이>를 골랐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화를 볼 때 가장 민망한 순간은 정사 장면이 아니라 ‘내 새끼가 이렇게 기특하게 컸구나’ 클리셰다. 신발장에 숨겨놓은 라이터를 들켰을 때만큼 짜증 난다. 따라서 이 영화는 오직 부모를 위한 영화다. 치매 걸린 홀어머니 향한 지극한 효심에, 그 수술비 마련 위한 처절한 사투, 또 요즘 애들 같지 않은 마초 감성의 순정까지. 강철이 만한 효자가 아니라면 크레딧이 올라갈 때 자녀들의 혈압도 함께 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영화가 끝나고 철없는 아들내미 등짝에 떨어지는 스매싱은 보너스다.



BEST 4 “세대 불문. 건전한 첫사랑 이야기”
러브레터(117분)

장르: 드라마(멜로/로맨스) 감독: 이와이 슌지
주연: 나카야마 미호, 토요카와 예츠시

키스 장면은 부모도 민망하다. 사춘기 여중생의 뒤통수는 그 민망함의 한 서른마흔아홉배 더 불편하다. 이 영화는 다행히 에로틱한 장면이나 역장이 무너지는 이별 장면이 없다. 고인이 된 연인 옛 애인을 잊지 못하는 와타나베 히로코는 중학교 졸업 앨범에 적힌 그의 과거 집 주소를 발견하곤 손편지를 보낸다. “오갱끼데스까. 와따시와 갱끼데스(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천국으로 쓰는 편지였지만 죽은 이로부터 답장이 오며 영화는 더욱 더 흥미롭게 흐른다. 굳이 여주인공이 이과수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주먹을 입에 넣고 오열하지 않아도 그 감정이 전달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러브레터>는 온 가족이 서로 민망하지 않은 선에서 크레딧 화면을 끝까지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로맨스 영화다.

강제 집돌이, 집순이를 위한

홈트레이닝으로 면역력 높이기

직장과 집 말고는 다른 곳으로 외출하기가 조심스러운 요즘, 많은 사람들의 활동량이 크게 줄었다. 규칙적인 운동과 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 때, 면역력 사수를 위한 홈트레이닝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수많은 운동 채널이 나타난다. 하루 20분 남짓한 시간만 꾸준히 투자하면 건강도 챙기고 개운한 기분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추천 홈트레이닝 채널

1 땅꼬부부



‘땅꼬’와 ‘오드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부부가 운영하는 홈트 채널이다. 전신운동과 부위별 운동 콘텐츠가 적절히 분포돼 있다. 중간 소음 걱정 없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줘 고정 팬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을 대표하는 ‘칼로리 소모 폭탄’이라는 이름의 전신운동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

2 미서원 SomiFit



운동 루틴부터 스트레칭, 필라테스, 체형 교정 뿐 아니라 식단까지 건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이다. 복근강화, 어깨와 골반 불균형 등 자세 교정과 근력 강화에 효과적인 운동법들을 소개한다.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꾸준히 해서 실력을 늘려간다는 기본에 충실한 홈트를 할 수 있다.

3 피지컬갤러리



‘아는 것이 곧 건강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의학 전문가들이 뭉쳐 운동과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채널이다. 김계란이라는 이름으로, 독특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하는 채널 운영자는 사실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의사, 필라테스 강사 등으로 이뤄진 팀이다. 고급 정보를 비전문가 눈높이에 맞춰 제공한다.

4 숨 쉬는 고래



요가와 명상 수련 콘텐츠를 만드는 브랜드 ‘숨 쉬는 고래’ 대표 김부진 씨의 명상 요가 채널이다. 몸의 붓기를 빼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잠자기 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요가 등 다채로운 상황에 적합한 동작들을 알려준다. 몸과 마음의 건강한 휴식을 찾고 있다면 명상 요가를 함께 해보자.

코로나19를 이기려면?

연일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끝없는 불안감만 안고 있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만 키울 뿐이다. 면역력이 낮은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 신종 질환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현황부터 대응 위한 교정본부의 노력까지

Part1. 전문가가 말하는 코로나19

개인위생 철저는 기본

최근 2월 28일자 NEJM(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보고된 중국 임상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은 평균 4일이며 환자의 평균 연령은 47세였다. 입원 환자의 43.8%에서 열이 있었지만 입원 중 88.7%에서 발생했다. 중증 질환이 있는 환자는 54세 이상이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증상이 더 나빠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큰 걱정은 면역체계가 약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거나 면역 노화가 시작되는 4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들은 대부분 몸속에 침투한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바이러

스가 몸속에 침투하면 몸은 자연살해세포(NK세포)·T세포·B세포·호중구·대식세포 등을 내세워 맞서 싸운다. 하지만 폐 앞쪽 흉선(胸腺)에서 생성되는 T세포 등은 나이가 들면서 적게 만들어지면서 면역력도 떨어진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 당뇨·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기저질환을 많이 동반하고 새로운 바이러스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에 노인들이 많이 감염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코로나19 등 코로나바이러스는 신체에 전반적으로 손상을 주는 인플루엔자와 달리 몸의 면역체계를 주로 공격하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취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스·메

르스·코로나19 등 코로나바이러스는 초기에 잘 대응하지 않으면 폐 등 중요한 장기에 염증을 추가로 일으킨다.

바이러스가 폐에 침입하면 우리 몸은 다른 장기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폐에 방어막을 쌓는다. 이 때문에 폐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COPD·심장병을 앓고 있다면 더 위태로워진다. 코로나19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저질환을 동반한 노인에게 더 위협적인 이유다. 따라서 면역체계가 약한 노인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 대응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모든 바이러스를 막는 최선책은 뜨거운 비눗물로 손 씻기 등과 같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손 표면을 통해 잘 전염되므로 가능한 한 손을 눈·코·입에 갖다 대지 말아야 한다.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개인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고 노력해야 한다. "50세가 넘으면 면역체계가 취약해진다"(재닛 로드 버밍엄대 면역세포생물학과 교수)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이가 들면 몸속 항체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면역 노화'를 겪는다. 이 때문에 고령이 되면 대상포진·수두 같은 전염병에 잘 걸린다. 실제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돼 목숨을 잃는 노인이 젊은 성인보다 3배가 넘는다.

어떻게 면역력을 키울까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 엉덩이관절 골절·배우자 사별 등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급감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비타민 섭취도 면역력 향상에 좋다. 특히 몸속에 비타민D를 많이 만들면 자신의 나이보다 30년 정도 젊은 면역력을 가질 수 있다는 다양한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 비타민D를 많이 생성하려면 매일 한 시간 이상 햇볕을 쬐면서 산책·운동해야 한다. 하루 30분 정도 활발하게 걸으면(Brisk walking) 면역세포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 에든버러 대학 염증 연구소의 리처드 멜란비 교수는 비타민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Frontiers in Immunology>에 발표된 그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D는 T세포의 작동 방식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멜란비 교수는 중년층의 문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햇빛으로 인한 자외선에 반응하여 피부에 비타민D를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에 취약하여 햇빛 노출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학자인 재닛 로드는 비타민D 생성을 촉진시켜 면역계 시계를 30년까지 젊게 되돌릴 수 있는 의외로 쉬운 방법을 제시했다. 바로 비타민D 결핍과 흉선 수축 및 면역 T세



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야외 햇빛에서 한 시간 이상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것이다.

그녀는 55세에서 79세 사이의 100명의 아마추어 자전거 타는 사람들 연구했으며 그들의 흉선이 명백하게 종종 20대 사람들의 T세포를 생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고했다. 2018년 '에이징 셀(Aging Cell)'에 발표된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클 선수들은 나이에 따라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 근육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 인터루킨7(Interlukin-7)이 흉선의 축소를 방지해 준다. 이 논문에서는 면역 증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햇빛 있는 곳에서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이고 주사나 물약은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위 결과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한다고 면역체계가 강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좀 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할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코로나19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망률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중 사망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의과 대학 닐 퍼거슨 교수와 다른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제 사망률에 대한 수치를 얻으려면 감염된 실제 사람들의 수를 추정해야 한다. 초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로 계산했을 때 사망률은 약 0.25%에서 ~4%로 계산된다.

사망률 0.25%는 1957년과 1968년 인플루엔자 전염병(모두 최소 백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과 비슷하지만 4%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전염병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경우에도 특정 병원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사망률은 0.25%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초기에 잘 관리 및 치료가 된다면 코로나19는 사망 우려 없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바이러스로 여겨도 좋을 것이다.

교정본부 코로나19 대응 현황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교정본부에서 시행 중인 감염병 위기 단계별 대응방안을 소개합니다.



1

'주의'단계

- 전국 교정기관 감염병 대책반 설치 및 상황실 운영
- 변호인 등 외래인에 대한 체온 측정 및 문진표 작성
- 정문·외부정문 근무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관별 격리수용동 지정, 보호복·보안경 등 방역장비 비치



2

'경계'단계

- 수용자 접촉 직원 및 외래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교화행사, 장소변경접견 등 외래인 방문행사 잠정 중지
- 신입수용자 신입거실 수용기간 7일 이상으로 연장
- 수령자 이송 중지



3

전국 교정기관 열화상 카메라 설치

- 안양교도소 등 전국 52개 교정기관 열화상 카메라 설치 완료
-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 실시



4

'심각'단계

-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 및 대책반 확대 운영
- 검찰·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신입수용자 수용 최소화
-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잠정 중단(스마트접견, 전화사용 확대)
- 공무상 접견 및 변호인 방문 접견 최소화
- 수용자 외부통근작업 및 외부강사 직업훈련 전면 중단
- 검찰·법원과 협의하여 검사조사·재판 최소화
- 확진자·감염 의심 수용자에 대해서는 구속·형집행정지 적극 건의



5

교정시설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 확진자 접촉 직원 및 수용자 즉각 격리
- 해당 교정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 실시(매일)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정시설 내 선별진료소 설치 및 역학조사 등 실시



6

법무부 교정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 비상 상황을 인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정시설 내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돌고래와 현옥 씨

직업훈련교사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출소한 수용자가 사회의 냉혹함에 또 다른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보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난제요 고민이다.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인성교육, 사회적응훈련이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제 노련한 조련사가 되어야 한다.

2015년 10월 말경 퇴근 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반가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전년도에 6개월 과정의 한식조리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더 배우고 싶은 열의가 커 화성 직업훈련소에서 1년 과정의 양식까지 무사히 마친 현옥 씨(가명)이다. 수료할 즈음 가석방을 얻어 출소한 그는 가르쳤던 나로서는 꽤 정성을 쏟았던 애제자였다.

“선생님! 그동안 별고 없었습니까. 지가 좀 급해서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말씀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지가 고깃집을 하나 해 보려고 합니다. 포항 쪽에는 생고기가 잘 팔리고 특히 여그 사람들은 쇠고기 우둔살 부분을 큼직큼직하게 썬 뽕태기가 유명하거라예. 그래서 선생님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나도 여러 음식을 접해보긴 했어도 뽕태기 고기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했더니 지방마다 음식이 조금씩 다르듯 그곳 사람들은 특별히 생고기를 자주 접하고 많이 먹는다고 했다. “고기 썰는 방법이나 온도 유지하는 것 운반하는 방법 등은 어깨너머로 좀 배웠는데 요놈의 소스! 그기 문젠가라예.”

그 친구는 머릿속에 고깃집을 다 구상해 놓고 나를 통해 마지막 포인트인 소스 문제만 해결하면 곧바로 시행에 옮길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내 대답이 명쾌하기는커녕 들어본 바도 없다고 하니 많이 답답해하는 듯 느껴졌다.

그렇다! 경상도와 전라도 문화도 풍습도 다르고 먹는 것조차도 다를진데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뽕태기 고기와 그 고기에 잘 어울리는 소스를 가르쳐 달라니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어색한 통화를 하는 동안 제자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상상이 간다.

통화는 계속되었다.

“현옥 씨 우리 이리저 말고 처음부터 갑시다. 현옥 씨는 뽕태기 고기와 소스를 먹어 봤을거 아

반가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전년도에 6개월 과정의 한식조리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더 배우고 싶은 열의가 커 화성 직업훈련소에서 1년 과정의 양식까지 무사히 마쳤다.

네요. 그 소스에 들어가는 양념을 자세히 말해 보세요.”

“재료 말입니까? 우선 자잘하게 썬 청양고추가 들어간 것 같고예. 육개장이나 중국요리에 많이 들어있는 빨간 기름 같은 것이 떠 있고예, 파, 마늘 다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재료는 없는 것 같아 보이던데요.”

저녁을 먹는 등 마는 등 나는 가까운 동네 마트에 가서 필요한 재료를 몇 가지 구입했다.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잠시 묵혀 뒀던 칼 세트도 꺼냈다. 먼저 고춧가루를 기름에 볶아 고추기름을 내고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준비하고 파, 마늘을 다졌다. 재료를 준비하면서 칼칼하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경상도 사람들의 음식 특성을 이해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간을 맞추기 위해 새우젓을 다져 준비했다. 그릇에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풋고추 다진 것, 고추씨기름 등 준비한 재료의 무게를 재고 소스를 완성했다. 하지만, 기대에 차고 희망에 부풀었던 첫 작품은 졸작이고 실패였다. 맵고 짜고 도저히 음식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밤이 깊도록 재료의 양을 늘이고 줄이고를 수십 회 거듭하고 다음 날은 어쩔 수 없이 연가를 내고 또 그 주말까지 비법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했다.

5일째 되는 날 나는 내 무릎을 손바닥으로 치며 나도 모를 함성을 질렀다. “개! 바로 이맛이야!” 큰 감탄사를 낼 정도로 입에 맞는 소스를 완성했다.

다음날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료의 무게를 정확히 재고 소스를 만들어 보라고 레시피를 불러 주었다.

두어 시간이 흘렀을까 제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자기가 먹어본 소스와 비슷하다며 들떠 있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몇 가지 향신료를 첨가해서 소스를 완성했고 제자는 고깃집을 열게 되었다.

생고기를 좋아하는 고객과 새로운 소스의 절묘한 만남이 제자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것이다.

가능성을 가진 후배들도 많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대할 때 직업훈련 교사로서의
보람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 후로도 성공의 단계를 하나씩 밟아 가고 있다.

경북 경산이 고향인 현욱 씨는 어렸을 적 포도 농장을 크게 하는 부모님 밑에서 부유하게 살았다고 했다. 농장이 잘 되자 그의 부모는 대추 농사도 짓고 복숭아도 농사도 지으며 살림을 늘려갔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만사 새옹지마라고 그의 부친은 노름에 빠지게 됐고 가세가 하루가 다르게 기울기 시작했다고 했다.

학교 다니던 그는 집에 오면 늘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 겁에 질려 울어대는 어린 동생들이 보기 싫어 가출했고 조그마한 섬유공장에 취업해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일하며 주경야독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열심히 살려고 마음먹었던 그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나쁜 일에 손을 대는 등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살아온 날들을 되짚었다.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일은 그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가 거의 마지막 징역을 살 때쯤 나를 만난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음을 너무도 잘 안다.

그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나는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었다.

교사와 제자가 한마음이 되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학과 공부하는 것 외에 인근 식당에서 쓰는 고기 채우는 방법이나 고기 연화법, 육수 내는 법, 후식 대처법 등을 내가 아는 대로 가르쳐 주고 직접 시켜 보기도 했다. 그리고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 좋은 마무리도 할 수 있었다.

해마다 오월, 스승의 날이 되면 그 제지는 반갑고 고마운 마음으로 부족한 스승에게 감사 인사드리는 것을 빼먹지 않는다.

지금도 이곳 순천교도소 한식반 직업훈련생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롤모델이 되는 선배의 뒤를 따라 기술연마에 전념하고 있다. 가능성을 가진 후배들도 많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대할 때 직업훈련 교사로서의 보람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직업훈련교사! 나는 참 매력 있는 직업이라 생각한다.

그런 만큼 우리는 우리의 직장 생활 영역 가운데 얼마나 희망적인 요소들을 안고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며칠 전 TV에서 본 장학사 한 분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장학사가 일선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다른 학생을 때리고 괴롭히는 문제 학생, 가정에서는 내놓은 자식, 학교 담임 선생님은 포기한 녀석으로 치부된 아이들을 모아 작은 컴퓨터를 열어 순화시키고 사랑으로 키워 가는 눈물겨

운 사연이었다.

땃발을 직접 일궈보게 해 땀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게 하고 기축을 기르며 어미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며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등 체험을 통한 교육이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은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넉넉한 가슴으로 꼭 껴안아 주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가슴 뭉클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교정현장에서 특색 있는 많은 사람과 접촉하며 살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오래된 관습으로 “죄짓고 또 들어 올 사람”, “구제 불능”이라고 낙인찍지는 않았는지, 또 그들을 그렇게 대하며 살았는지 지나온 일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몇 년 전, 놀이공원 대형 수족관에 있던 돌고래 제돌이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잘 살고 있는지 많은 사람과 조련사들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들었다.

제돌이는 수족관에 사는 동안 장기를 보여주는 대가로 받은 먹이로 살았고 몸이 약해지면 수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이나 영양제로 살았다. 그런 제돌이에게서 야생의 본성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제돌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혼자서 몸이 되어야 한다. 먹잇감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적으로부터의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친구도 사귀어야 하고 가족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은 기우였던지 위치 추적기를 달고 생활하는 제돌이가 조련사가 가르쳐 주는 데로 야생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저 태평양 넓은 바다를 가슴으로 품을 듯 제돌이의 앞날에 희망이 있어 보인다.

수용자에게 있어서 세상은 헤쳐 나가기 힘든 장애물이다. 돌고래 제돌이가 느끼는 수족관의 평온한 환경과 태평양의 넓고 거친 바다 환경과 견줄 만하다.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이질감을 느끼고 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하면 돌고래 제돌이나 출소한 수용자의 앞날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출소한 수용자가 어설픈 발 디뎠다가 사회의 냉혹함에 또 다른 죄악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보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난제요 고민이다.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인성교육, 사회적응훈련이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제 노련한 조련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용자 개개인을 위한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분이고 시대적 소명이다.

제자 현욱 씨는 몽태기 고기 외에 부수적으로 냉면을 곁들여 쓸쓸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자랑 일색이다. 대견하고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현욱 씨가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또 다른 이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

교정인들의 숨겨 자랑을 도와드립니다. 수필, 시, 사진, 그림, 서예, 공예 등 어떤 작품이든 OK! 교정인의 작품이라면 무엇이든 보여주세요. 작품과 짧은 설명을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 보내시면 다음 호에 실어드립니다.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합니다.



‘희망의 백일장’은 수용자들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출소 후 뚝뚝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참회와 교화의 시간을 거쳐 사회로 돌아갈 수용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시골의 단란한 한 가정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3대가 살았고 내리사랑을 받았고, 행복함 속에 밝게 자랐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7년 9월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당시 첫눈에 반해 적극적 대시 후 싱글라이프를 접고, 행복 시작, 불행은 끝, 결혼에 골인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나라 중공업의 하한기를 겪으며 아내와 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고 아내의 고향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새 희망의 꿈을 키우며, 큰처남, 장모님, 홀로 계신 어머님의 도움을 얻어 작은 가게를 열고 성공의 가도에 선 듯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열심히 우리 부부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우리 가게는 손님의 발길이 조금씩 줄었고, 거기다 식자재비 상승, 가게 운영비 상승 등으로 버틸 수 없게 되자 아내와 상의 끝에 제 고향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페인트 시공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새벽공기를 마시며 출근하고 어둠이 올 때쯤 퇴근했지만, 아내에게 보탬이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8월의 어느 날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접촉 사고가 있었으나 합의했고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되었고 실형 선고는 불가피했습니다.

신혼인 아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사랑과 행복만 주어도 부족한데...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전 결심했습니다. 금주! 그런데 제 지인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네가 술을 끊는다고? 누가 믿어 줄까?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한다면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날 믿어 주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특히 험난한 사회에서 남편도 없이 대출금과 여러 부

채를 홀로 감당하며, 식당일에 여러 아르바이트며, 힘들게 내색도 못 하고 고생에 아파할 아내만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가게는 부동산에 내놓은 지 오래지만 나라 경제도 어려워 급매물로 내놓는 가게는 권리금은 물론 보증금도 까먹는 실정이라 제가 도움이 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괴로워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면회를 오면 내 걱정만 해주는 아내의 따뜻함이 저를 더욱 성숙하게 합니다.

이제는 수형 생활 속에 저 자신을 가꾸고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고,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아 갑니다.

사회로 복귀하는 그 날, 많이 성장한 모습과 바뀐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지금은 취사장에서 같은 처지의 수형자들의 식탁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사장 일은 때론 힘들의 연속이지만, 매시간 삶의 귀중함을 상기합니다.

지난 시간 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깊이 반성하며 머리 숙여 정중히 사죄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절 사랑해주는 아내와 가족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끝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음주운전에 대하여 “난 괜찮겠지!”, “난 운이 좋아!” “딱 한 잔쯤이야!”같은 속단은 금물입니다. 음주운전 이제는 하지 맙시다.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며 주위 모든 사랑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전 믿습니다. 이 글을 마치는 지금 전 참 가슴이 따뜻해지며 벽차오름을 느낍니다.



“ 절 사랑해주는 아내와 가족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

교정음악치료가 수형자의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정서변화에 미치는 효과 (上)*

-타악기를 중심으로-

- I. 서론
- II. 교정음악치료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V. 결론 및 제언



* 교정연구 제29권 제4호 통권 제85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보완 하였음
▶ 접수일(2019. 11. 30.) 심사일(2019. 12. 18.) 수정일(2019. 12. 23.) 게재확정일(2019. 12. 26.)

■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타악기를 중심으로 한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의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정서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교정심리치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음악치료의 효과와 강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S 교도소의 집중인성교육에 참여하는 남성 수형자 14 명이며, 범죄자 치료 모형 중 좋은 삶 모형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총 8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해 자아존중감 검사(SEI)와 다면적 형용사 체크리스트(MAACL)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측정된 결과를 대응표본 t 검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사전·사후에 측정된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3.59점에서 3.72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자기주장과 확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MAACL 점수는 평균 15.43점에서 12.36점으로 감소하였으며, MAACL 하위 요인 중 불안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감정 표현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및 스트레스 해소,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극복, 동료와의 관계 개선, 수감 생활 및 출소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 설계 등에

유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연구는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행한 결과 음악치료가 통제된 교도소 환경에서 제한되기 쉬운 수형자의 자기 표현과 건강한 대인 교류 경험을 제공하여 수형자의 중요한 재범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정서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본 논문은 주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축약한 것이며, 연구년도(2014~2015년) 당시 본교 IRB 승인 절차가 필수 조건으로 요구되지 않았음

** 가족사랑음악치료센터 학교·교정음악치료팀장, 음악중재전문가(KCMT), 제1저자.

***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전공 초빙교수, 교신저자

●주제어 : 교정심리치료, 음악치료, 수형자, 자아존중감, 부정적 정서, 좋은 삶 모델

I. 서론

교정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수형자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중재하여 내적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복귀 역량을 강화시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형자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은 취약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범죄자들은 대체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공감 능력 부족, 원만하지 못한 대인 관계적 특성을 가지며(이정상·김현아, 2011), 범죄 행동 후 수감 생활로 사회에서 격리됨으로 자율성과 자아존중감에 더욱 손상을 입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홍성열, 1998). 수형자의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정서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으며, 범죄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Gergen, 1971). 따라서 범죄와 연관성이 높은 심리·정서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정서 변화를 위한 치료적 접근은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정음악치료는 법 정신의학, 교정 정신의학, 교도소,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교정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음악치료로(Chen et al., 2013),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심리치료 방법이다(Thaut, 1987). 그러나 이유진(2016)이 전국 39개 교도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9%의 교도소에서 가창(합창, 아카펠라), 악기 교육(우쿨렐레, 기타, 오케스트라) 등 음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음악치료로 명시된 프로그램은 17.3%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교도소의 음악 프로그램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음악강사 혹은 예술가가 진행하는 교육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프로그램 담당 교도관들은 강사의 전문성, 음악치료 및 음악교육에 대한 전반적 정보 부족과 낮은 이해도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음악교육과 음악치료는 음악 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음악치료는 치료 대상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중재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음악치료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분명한 치료 목적을 가지고 개인 및 집단 치료에 음악을 임상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음악교육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예술 교육적인 측면에서 수형자의 정서 순화를 위해 음악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형자의 내면 치유와 성장, 재범 방지에 이르는 교정심리치료의 한 전문 분야로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타악기 연주 활동을 주 중재 도구로 구성된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중요 재범 요인인 수형자의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정서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교정심리치

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음악치료의 강점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교정음악치료

1. 교정음악치료의 개념 및 강점

교정음악치료는 법 정신의학, 교정 정신의학, 교도소,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교정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음악치료로, 음악 감상, 노래 심리치료, 치료적 즉흥 연주, 음악을 통한 이완, 심상유도 음악치료(Guided Imagery Music, GIM) 등의 음악치료 기술과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다. 교정음악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음악치료 활동에 참여하는 수형자가 치료 과정을 통해 범죄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Mark, 1986). Loth(1994)는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치료의 강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인지 수준을 보이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환경에서 효과적이다. 음악은 낮은 교육 수준이나 언어 표현력으로 자기표현이나 토론 활동에 제약이 있는 수형자라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보안과 지휘 체계가 엄격한 교도소 환경에서 금지되는 행동(소리 지르기 등)들이 음악치료 활동 안에서 구조적이고 수용될 수 있는 행동으로 대체된다. 셋째, 비언어적인 음악치료 활동이 수형자들의 안전한 감정 표현과 나눔, 치료적인 동기를 고무시킬 수 있다. 수형자들은 치료 환경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른 동료들로부터 탈취 및 강탈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자기 개방을 꺼리게 되는데,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최초로 보고된 교정음악치료는 Wardle(1979)의 연구로, 치료 감호를 받고 있는 여성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선호 노래 부르기, 즉흥 연주 등 음악치료 기법을 적용하였다. 2002년에 미국의 음악치료 학술지 중의 하나인 <Music Therapy Perspectives>는 전 지면을 법 의학 및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치료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로 헌정하였다.

Music therapy perspectives(2002), vol 20

국내에서는 구혜경(2012)과 양혜경(2013)의 연구에서 정신 병력이 없는 남성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최은정



(2012)과 윤주리(2014)는 보호관찰 청소년과 조건부 기소유에 판결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음악치료가 자아존중감 및 외적 통제소 성향의 향상, 불안, 분노 등 부정적 정서 감소, 자율성의 촉진 등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1) 수형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형자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성공의 확신이 있을 때에만 적극성을 보인다(홍성열, 1998). 이 때 음악은 동기 부여제, 격려제, 강화제의 역할을 하여(Coddling, 2002; Polaschck, 2011) 참여 촉진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음악 만들기 등의 치료적 음악 활동은 참여자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도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자기 표현 및 자의식 증진에 유용하다. 수형자는 자신의 장점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홍성열, 1998),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장점과 성장 자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은 출소 이후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음악치료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활동의 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받으며, 자아존중감 상실을 경험하기 쉬운 환경에 놓인 수형자에게 즉각적인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도록 돕는다(Hakvoort & Bogaerts, 2013).

2) 수형자의 정서 변화를 위한 음악치료

음악은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이다. 음악 경험을 통해 지각된 리듬, 박자, 선율, 강도 등 음악 요소는 우뇌를 거쳐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기관인 림빅시스템(Limbic system)으로 전달되며, 음악을 감상하거나 만들어가는 처리 과정은 시상하부를 자극하여 자율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부정적 정서 변화 및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Thaut, 1990). 음악 요소는 행동과 감정의 분리를 경험하게 하여 다양한 감정을 수용하고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개성 상실과 사회적 소외감 증가로 고착화되기 쉬운 수형자의 부정적 정서 전환을 위한 감각적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음악 활동 참여가 수형자가 경험했던 교도소 밖 현실 세계와 감정적으로 강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은 수형자의 정서 전환에 치료적 의미를 가진다. 음악을 통해 유발되는 음악적 정서 경험은 감금된 환경 속에서 개인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건강한 현실 세계를 대리 경험하게 하며, 현실 생활과 감정의 재경험 및 재창조를 유도한다. 이 경험은 치료적으로 의미 있는 사고와 감정 및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며, 수형자가 당면한 수감 환경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기반이 되어 생활 적응과 정서 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Bunt, 1994; Thaut, 1987; Tuastad & Grady, 2013).

1) Music therapy perspectives(2002), vol 20

음악은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이다. 음악 경험을 통해 지각된 리듬, 박자, 선율, 강도 등 음악 요소는 우뇌를 거쳐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기관인 림빅시스템(Limbic system)으로 전달되며, 음악을 감상하거나 만들어가는 처리 과정은 시상하부를 자극하여 자율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부정적 정서 변화 및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Thaut, 1990). 음악 요소는 행동과 감정의 분리를 경험하게 하여 다양한 감정을 수용하고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개성 상실과 사회적 소외감 증가로 고착화되기 쉬운 수형자의 부정적 정서 전환을 위한 감각적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음악 활동 참여가 수형자가 경험했던 교도소 밖 현실 세계와 감정적으로 강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은 수형자의 정서 전환에 치료적 의미를 가진다. 음악을 통해 유발되는 음악적 정서 경험은 감금된 환경 속에서 개인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건강한 현실 세계를 대리 경험하게 하며, 현실 생활과 감정의 재경험 및 재창조를 유도한다. 이 경험은 치료적으로 의미 있는 사고와 감정 및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며, 수형자가 당면한 수감 환경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기반이 되어 생활 적응과 정서 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Bunt, 1994; Thaut, 1987; Tuastad & Grady, 2013).

3) 수형자의 행동 변화를 위한 음악치료

음악치료는 수감된 수형자에게 변화를 선택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실현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Mark, 1986). 음악이 가진 비언어적, 비위협적 요소들은 정서 및 행동 변화의 도구에 사용하기 유용한데, 안전한 음악치료 환경 안에서 새로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Hakvoort & Bogaerts, 2013). 수형자가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감, 협력 등 친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적인 경험이 주어져야 하는데(Jones & Shmid, 2000), 집단음악치료의 형태는 비 범죄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친밀한 사회적인 틀로써 대안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Linden & Perry, 1983). 집단 형태의 음악 활동은 구조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범죄적인 행동을 학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도를 가진 새로운 집단 환경에 노출시킨다(Silber, 2005). 이러한 공동체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모델링,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행동 양식 습득, 태도와 관심사의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Sutherland & Cressey, 1978).

2. 타악기 중심의 음악치료

1) 타악기의 치료적 의미

치료적 도구로서 타악기는 인간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감정 표현의 배출구 역할을 한다(Boxil, 1985). 타악기 연주는 음악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리듬을 활용하는데, 리듬은 안정적인 구조를 제공하며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악기를 연주할 때 나타나는 감정은 악기의 진동이 가지는 물리적인 에너지와 음악적 요소를 통해 청각 자극으로 지각되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으로 표출된다(Boyle, 1988). 이를 통해 개인은 즉각적인 소리 반응에 집중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다룰 수 있어 기질적으로 충동성이 높은 사람에게 효과적이다(정현주, 2011). 집단으로 진행되는 타악기 연주는 합주 및 즉흥 연주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음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지적 혹은 대립적인 경험이 각 개인의 성장 자원이 된다. 연주 과정에서 집단 구성원은 자신을 표현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음악적 맥락 안에서 표현하고 듣는 역동적인 경험은 그룹 구성원들이 '지금-여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선명하게 느끼게 한다(Dickinson et al., 2012). 이 경험은 자발적인 자기 표현을 촉진 시켜 성취감, 자신감, 만족감 등 자기 인식 및 욕구 충족과 정서 변화 등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치료적으로 작용한다(Boxil, 1985; Hull, 1998).

2) 수형자를 위한 타악기 음악치료

Nolan(1983)과 Lang(1993)은 교정 시설에 수감된 수형자는 언어적 반응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향이 있으므로 비언어적이고 활동 중심적인 음악치료를 권장하였다. 타악기는 몸체를 손이나 채로 치거나 두드리는 방식으로 소리를 내어 자신의 감정이나 에너지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일정 기간의 교육이 없이도 간단히 연주할 수 있어 참여자의 부담과 불안 수준을 낮출 수 있으며, 신체적·인지적·정서적으로 다양한 수준을 보이는 수형자 집단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타악기를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참여자들에게 강한 그룹 정체감과 소속감을 갖게 해준다는 점은 교정음악치료 세팅에서 중요한 치료적 의미를 가진다. 일정한 박이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동료 수형자와 함께 활동적으로 음악을 만들어가는 경험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결속력을 만들어준다(Reuer, Crowe & Bernstein, 1999). 협력, 화합, 소속감 등의 감

정은 수형자들의 재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외로움을 통제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Doren, 1999) 수형자들의 수감 생활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선행 연구들은 타악기 중심 교정 음악치료가 수형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도구로서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Watson(2002)의 연구는 타악기를 활용한 리듬 중심 연주와 즉흥 연주를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재범에 대한 위험성 감소와 연관된 요인인 친밀감 향상, 사회적 기술 및 행동능력 향상, 감정의 인식 및 표현 요인에서 긍정적 연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재범을 일으킨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타악기 즉흥 연주 중심 음악치료를 실시했던 Hopkyns(1988)는 음악치료의 효과로 참여자의 이완 및 진정 효과, 상호 작용 및 사회화의 증가,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감정, 안전한 감정 표현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재범의 위험 요소와 연관되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중재 전후 점수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1-1.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하위 요인인 '자기 고양',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과 확산' 중재 전후 점수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2.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부정적 정서 중재 전후 점수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2-1.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부정적 정서 하위 요인인 '우울', '불안', '적대감' 중재 전후 점수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법무부에 의해 집중인성교육 이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소재 S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 수형자 14명으로 모두 초범이다. 참여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S

교도소에 일시적으로 수감되었고, 과정 종료 후 타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번	대상	연령	최종학력	범죄 유형	징역
1	A	58	중 중퇴	성폭력	징역7년
2	B	45	초졸	특수강도	징역3년
3	C	22	4년제 재	성폭력	징역5년
4	D	27	고졸	성폭력	징역5년
5	E	47	4년제 졸	성폭력	징역7년
6	F	38	고졸	성폭력	징역3년
7	G	28	대학원 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4년
8	H	39	고 중퇴	살인	징역6년
9	I	25	고 중퇴	강도상해	징역4년
10	J	43	고졸	사기	징역6년
11	K	35	고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4년
12	L	36	고졸	강간	징역7년
13	M	43	고졸	성폭력	징역7년
14	N	55	고졸	사기	징역3년

3. 측정 도구

1) 자아존중감 척도 (Self-Esteem-Inventory, SEI)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SEI)를 강종구(1986)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25개의 문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와 신념을 평가한다. 이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으로 3,9,5,14 문항을 제외하였다. 4가지 하위 요인은 자기고양²⁾, 타인과의 관계³⁾, 지도력과 인기⁴⁾, 자기주장과 확산⁵⁾이다. 전체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다. Cronbach's α 로 측정된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사전 .84, 사후 .86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 2) 자신이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경향에 대한 척도이다
- 3) 타인 및 가족에게 사랑 받는다고 생각하고 환경에 적응을 잘하며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척도이다
- 4) 자신이 인기와 매력 있다고 느끼며, 남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척도이다
- 5) 자신의 생활 태도에 대해 자신감이 있어 결단이 쉽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척도이다



<표 2> 다면적 형용사 체크리스트(MAACL)

하위요인(문항수)	문항 내용
부정적 정서 (48)	<p>우울 (24)</p> <p>(+) 외로운, 기분 나쁜, 우울한, 낙심한, 고독한, 침울한, 절망적인, 쓸쓸한, 갈피 못 잡는, 맥빠진, 불쌍한, 버림받은, 괴로운, 기운 없는, 무서운, 답답한, 불행한, 풀죽은</p> <p>(-) 활기찬, 충만한, 기분 좋은, 명랑한, 건전한, 즐거운</p>
	<p>불안 (10)</p> <p>(+) 염려스러운, 두려운, 놀라는, 신경질 나는, 당황한, 흔들리는, 긴장한, 혼란스러운, 성가신</p> <p>(-) 침착한</p>
	<p>적대감 (14)</p> <p>(+) 화가 나는, 잔인한, 불쾌한, 격한</p> <p>(-) 유쾌한, 상냥한, 협력적인, 친절함, 공손한, 동정적인, 온순한, 이해심있는, 정감있는, 따뜻한</p>

2) 다면적 형용사 체크리스트 (MAACL)

Zuckerman과 Lubin(1965)이 제작한 다면적 형용사 체크리스트(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MAACL)의 간편형을 이영호(198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정적 정서를 우울, 불안, 적대감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고 있으며, 우울 24개, 불안 10개, 적대감 14개 총 48개 형용사 문항이다. 각 하위 요인 별로 (+)에 해당하는 형용사에 체크된 수와 (-)에 해당하는 형용사에 체크되지 않은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Cronbach's α 로 측정된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사전 .90, 사후 .81로 높은 편에 속한다.

4. 연구 설계 및 절차

연구는 동일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통제집단 설정이 불가하여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로 진행되었다. 2회의 예비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평가과 보안을 거쳐 2014년 9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주 1회, 100분씩 총 8회기로 '성장을 위한 여정-음악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교도관 입회 아래 진행되었고, 녹화 및 녹취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음악치료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1인이 관찰자로 참여하여 참여자들이 보이는 행동적·언어적 반응을 수기 기록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기관 대응 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3월 9일 대구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구교도소 직원들이 업무수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양교도소 작업장에서 만든 면 마스크를 전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는 현장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3월 2일 김천소년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교도소24시)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교정본부는 지난 2월 4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다.(8월 5일 시행 예정) 이번 개정을 통해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라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수용자의 징벌 대상행위 및 수용이력 등 통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서신', '영치금품' 등 어렵거나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편지', '보관금품' 등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다.

수용자종합문예지 '새길' 일력 해외 수감자 배포

교정본부는 지난 2월 17일 일본 등 93개국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게 수용자종합문예지 '새길'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제작한 일력 1,399부를 배포하였다. 이번 일력 배포는 해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재외국민의 정서순화 및 교정교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었으며, 외교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 새길 : 교정본부에서 194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는 수용자종합문예지로 시, 수필, 독후감 등 수용자 문예 작품 50여 편을 수록하고 있다.(계간 발행)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총력대응 방안 시행

교정본부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감염증 위기단계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총력대응 방안을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하였다. 주요 내용은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 돌입 및 대책반 확대 운영, 일반 접견 잠정 제한(전화사용 및 스마트접견 확대), 수용자 외부통근작업 및 외부강사 직업훈련 전면 중지 등이며 검사조사, 재판, 공무상 접견 및 변호인 방문접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촉

교정본부는 지난 2월 27일 법률, 취·창업, 교육,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7명을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은 앞으로 2년간 새로운 교정·교화프로그램 개발 및 교정정책 수립 시 타당성·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과 시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수행하게 된다. 첫 회의는 올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코로나19 총력 대응

서울지방교정청은 코로나19대응을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당직 근무 체계를 변경했다. 대응 가이드라인 크로스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발송하여 감염병 예방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각 사무실 내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 교도 김상혁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전 실시

서울구치소는 반부패·청렴 고취를 확립하기 위한 청렴 표어 공모전을 2월 중 일주일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 직원이 적극 참여해 청렴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으며 선정된 표어는 서울구치소 내 청렴계단 조성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제54대 김진구 소장 취임



안양교도소는 2월 10일 제54대 김진구 소장이 취임했다. 김진구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직원 사이의 존중과 배려를 통해 화합하는 안양교도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제24대 정병헌 소장 취임



수원구치소는 2월 10일 제24대 정병헌 소장이 취임했다. 정병헌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 집행, 서로 소통하는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교정동우회 서울동부지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2월 14일 교정동우회 서울동부지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현안 및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 회원들은 향후 후배들이 현장에서 안정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심폐소생술 및 코로나19 교육



인천구치소는 2월 18일 심폐소생술 및 코로나19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찬성 의료기술서기관의 진행으로 실시된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및 실시요령,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이해 및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실시되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코로나19 감염증 총력 예방



서울남부구치소는 기관 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방안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정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사랑의 단체 헌혈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월 14일 코로나19의 여파와 동절기 학생 단체헌혈 감소로 발생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2020년 사랑의 단체헌혈 행사’를 실시하였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김길용

코로나19 총력 대응

의정부교도소는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정문·청사 등 외래인 출입지역 상시 방역, 외정문 및 정문 출입 시 체온측정 및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관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여주교도소는 2월 24일 경기혈액원과 협조하여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차례 취소되었던 행사였지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 의미 있고 따뜻한 행사가 되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행복한 직장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2월 20일,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남부교도소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업무 중 느꼈던 불필요한 관행이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적극 개진했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춘천교도소 / 교도 이건희

제56대 장종선 소장 취임



춘천교도소는 2월 10일 제56대 장종선 소장의 취임식을 진행하였다. 장종선 신임소장은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며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교정행정을 실현하고, 직원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제38대 양원동 소장 취임



원주교도소는 2월 10일 제38대 양원동 소장 취임

임식을 개최하였다. 양원동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직원이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직원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제44대 김일환 소장 취임



강릉교도소는 2월 10일 제44대 김일환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일환 소장은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직무를 수행할 때 교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직원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즐거운 직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영월교도소 / 교도 정옥수

직원간담회 및 모범교도관 시상식 개최

영월교도소는 유승만 서울지방교정청장의 방문을 맞이하고 직원간담회 및 모범교도관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으며 모범교도관 3명이 포상을 받는 등 현장 직원들이 많은 격려를 받았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윤우리

제21대 최중수 지소장 취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2월 10일 제21대 최중수 평택지소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취임식에서 최중수 지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열린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망교도소 / 배현승

교육동 환경개선 실시 및 감성센터 오픈

소망교도소는 2월 3일부터 2주간 교육동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기존 교육장을 수용자 감성센터로 새롭게 탈바꿈하였다. 교육동 환경개선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교육강의실 확대와 수용자 정서함양 및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강재훈

코로나19 대응 소속기관장 영상회의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2월 27일 소속기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기관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차관님 지시사항 등을 전달, 각 기관의 감염병 대응현황 공유 및 대책방안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전 직원 합심해 코로나19 총력 대응



대구교도소는 2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 되어 유래 없는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책반은 연일 격무에 휴식시간도 없이 각종 업무를 처리해내며, ‘위기는 열정으로 극복한다’는 다짐으로 대구교도소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최병철

민원인 무료법률상담

부산구치소는 2월 3일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은 김지는 변호사가 수용된 가족이 있는 민원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근심과 불안을 덜어주는 기회가 됐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진용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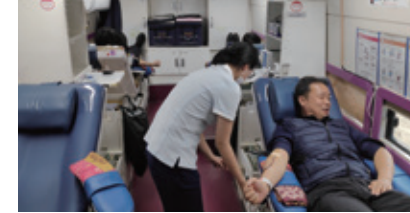
지역사회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2월 13, 14일 이틀간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청송군 진보면 소재 진보초등학교와 진보고등학교 졸업생 각 1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지급하였다. 장학금 전달

은 2008년 교정장학회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창원교도소는 2월 17일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참여운동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으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창원교도소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직원 사진전 개최



부산교도소 보안과 직원이 사진으로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했다. 김선영 교위는 2월 17일 ‘치유(治癒)’라는 테마로 개인 사진전을 열고 “각종 공해에 시달리는 부산 시민들에게 맑고 푸른 자연의 청량감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영식 소장은 “앞으로도 많은 직원이 자아실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포항교도소 / 교도 김병수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포항교도소는 2월 3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행사는 저출생,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실시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제34기 마음치유 프로그램 시행



진주교도소는 정신질환 수형자 심화과정 25명, 개방형 1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차(제34기) 마음치유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1월 6일부터 인지행동치료 등 6개 과정을 3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4차에 걸쳐 진행한 프로그램은 자해·폭행 등 교정사고 예방과 환소 후 안정적인 수용생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구치소 / 교도 김경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교육 실시

대구구치소는 2월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주요 증상과 개인별 마스크 착용,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생활화 및 감염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였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제42대 류동수 소장 취임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2월 10일 제42대 류동수 소장이 취임했다. 류동수 소장은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그를 바탕으로 수용자의 성공적인 교정교화를 실현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하였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코로나19 감염증 예방활동 실시

안동교도소는 2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모든 사무실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했으며 정문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모든 출입자에 대한 체온을 측정하는 등 출입자 통제에 주의하고 있다. 또한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빵 나눔, 이웃사랑 실천



김천소년교도소는 2월 14일 소년수형자 직업훈련교육장(제과제빵)에서 만든 빵, 쿠키 등 60인분을 지역 무실경로당·인덕요양원에 전달하였다. 이번 나눔을 통해 소년수형자의 심성 순화 및 배려의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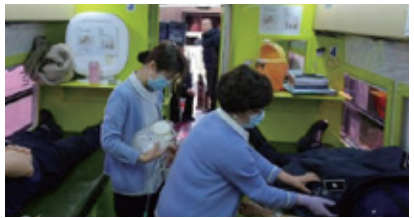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영진

생일직원 축하 행사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월 3일 1~2월에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초대하여 생일축하 행사를 개최하였다. 생일을 맞은 직원들은 케이크와 다과를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조직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일조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울산구치소 / 교도 박준규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울산구치소는 2월 18일 생명 나눔과 이웃 사랑의 실천 일환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한천용 소장은 "코로나19로 혈액수급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행사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징벌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장 전수



경주교도소는 2월 7일 청사회의실에서 신규 징벌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였다. 송상기 소장은 위촉장을 전수하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맡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통영구치소 / 교위 강구혁

코로나19 대응 열화상카메라 설치 운영



통영구치소는 2월 12일부터 직원 및 외부인, 직입소 수용자 등의 체온측정을 위해 정문 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체온이 37도를 넘는 직원 등이 있으면 바로 정문 근무자가 상담을 실시하고, 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경우 보안본부, 의료과 및 관내 보건소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밀양구치소 / 교도 최상훈

관내 독거노인 등 위문품 전달

밀양구치소는 2월 18일에 관내 지역주민 6명을 방문하여 위문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변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매일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나눔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지속될 예정이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코로나19 감염증 예방활동 실시

상주교도소는 2월 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교정시설 내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증상과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기관 내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작한 감염증 예방수칙 동영상상을 민원실에 송출하는 등 감염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임제혁

제29대 대전지방교정청장 취임



대전지방교정청은 2월 10일 제29대 김천수 청장이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김천수 청장은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며 기관 간의 인력 운용, 수용관리 상의 역량 편차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남·북 형법 비교를 통한 통일·안보교육 실시



대전교도소는 2월 17일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정대관 교수를 초대하여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했다. 대전교도소 징벌위원 등으로 다양한 교정행정에 참여한 정대관 교수는 이날 교육에서 남한과 북한의 형법 비교를 통한 형사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다.

청주교도소 / 교위 박해양

현대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청주교도소는 2월 19일 직원 복지 향상 및 행복한 직장만들기를 위해 '현대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직원 소유 현대자동차 30대에 대해 '엔진점검, 워셔액 및 부동액 보충, 와이퍼 교환 등'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 청주교도소는 하반기에도 직원소유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천안교도소 / 교도 전인호

코로나19 간이선별검사소 개선



천안교도소는 2월 4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정문의 간이선별검사소에 천막을 설치했다. 추위에도 외래인이 문진표 작성, 체온검사 등 선별검사를 원활히 받을 수 있게 해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제29대 윤순풍 소장 취임

청주여자교도소는 2월 10일 제29대 윤순풍 소장 취임 행사를 진행했다. 윤순풍 소장은 취임 행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정행정을 실천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직원 승진임용식 개최

공주교도소는 2월 3일 직원 승진임용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승진자들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직원들로 동료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기쁜 마음으로 승진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다. 승진자들은 한층 무거워진 책임감을 느끼며 공주교도소와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소통을 위한 기관장과의 점심 한 끼



충주구치소는 2월 19일 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장과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 이날 4명의 직원(교도)이 직원식당에서 기관장과 식사를 하면서 직장 생활의 고충과 업무적인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공감의 자리를 만들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조경환

직원 승진신고식 개최

홍성교도소는 2월 3일 직원 승진신고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교위로 승진한 직원들은 신고식을 마치고 많은 직원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 이들은 높은 계급만큼 더욱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최재균

코로나19 총력 대응

천안개방교도소는 2월 3일 대책반을 편성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하여 비상체계유지에 들어갔고 외부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민원인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문진표 작성 및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의심증상자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김승인

제7대 유철흠 지소장 취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2월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제7대 유철흠 지소장 취임행사를 진행했다. 유철흠 지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을 비전으로 전 직원이 협력하여, 행복한 직장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박지우

제23대 허휘 지소장 취임식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2월 10일 제23대 허휘 지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허휘 지소장은 익일 각 근무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과 직원 상호간 소통·화합을 바탕으로 엄정한 수용관리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안동일

코로나19 관련 소속기관장 영상회의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2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소속기관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신경우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방위적인 예방활동에 총력대응을 당부하였다.

광주교도소 / 교도 심우민

폭설 대응 제설작업 실시



광주교도소는 2월 17일,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교도소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설작업과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했다. 광주교도소를 찾아오는 길목의 제설작업을 통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제65대 최병록 소장 취임식 개최



전주교도소는 2월 10일 제65대 최병록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최병록 소장은 취임사에서 "정력한 공직 문화 조성, 인화 단결을 통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교정행정의 중대한 목표를 이루겠다" 라고 밝혔다.

순천교도소 / 교사 이승헌

청렴실천·갑질근절·음주운전근절 결의대회 실시

순천교도소는 2월 19일 청렴실천·갑질근절·음주운전(숙취운전)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석 직원들은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과 부패 없는 교정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민선

직원 승진임용식 개최



목포교도소는 2월 3일과 7일 직원 승진임용식을 개최하였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승진한 직원들은 더 큰 책임감으로 주어진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고, 김춘오 소장은 직원 한명 한명이 교정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며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외부강사 초빙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군산교도소는 2월 4일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및 전 군산교도소장인 박광래 강사를 초청하여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핵심인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제47대 남상오 소장 취임식

제주교도소는 2월10일 제47대 남상오 소장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남상오 소장은 '인화단결'을 강조하며 화합하여 즐거운 직장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지역사회 장학금 전달

장흥교도소는 관내 중학교 졸업생 4명에게 준법상을 수여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보라미 봉사단의 봉사활동 일환으로 시작된 장학금 전달은 매년 관내에 위치한 용산중학교의 추천을 받아 졸업생에게 20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해남교도소 / 교사 이상문

사랑의 헌혈 행사 동참



해남교도소는 2월 5일 사랑의 헌혈 행사에 동참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전해 들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로 국민들의 어려움 해결에 항상 앞장서왔던 해남교도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사랑의 손잡기 운동 실시

정읍교도소는 2월 20일 관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정읍 소성면 소재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세 분께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전파하고, 소외계층에게 훈훈한 손길을 전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교정공제회

상반기 교정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의뢰

교정공제회는 매년 회원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교정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개정된 장학사업규정에 따라 회원 가입 기간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회원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3월 중 상반기 장학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교정공제회(02-584-5613(내선번호3003),http://cmaa.or.kr)에서 받을 수 있다.

국군교도소

군사시설 테러 예방 및 대공 교육 실시



국군교도소는 2월 21일 안보지원사령부 주관으로 군사시설 테러 예방 및 대공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군사정보 유출 방지 및 시설보안 등 보안의 중요성과 테러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군은 군사기밀유출 예방 등의 목적을 두고 국군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서울

의정부교도소 교위 한강문



수용동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수용자의 고충 해결과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적극적인 상담으로 수용자들을 돕고 있다. 수용자의 준법정

신 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거실 내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나 폭행 사건에 대한 예방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호회 활동, 동료의 경조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동료 간 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

울산구치소 교사 박봉효



민원과 영치금 근무자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영치금 지출 및 입금 관리에 힘써왔다. 보안과 수용동 근무 시에는 공정한 수용문화

정착 및 수용자 간 폭행 근절을 위한 수용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했다. 기관 특성상 접근이 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해 버스시간표, 기차시간표 등을 안내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 교정공무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대전

대전교도소 교감 조영희



아동성폭력 교육 담당자로 성폭력사범 재범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성실히 교육하는 등 교정행정발전에 기여했다.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근무 자세로 교정사고를 방지했다. 특히 주둔군지위협정 합의사항13호에 의거 입소한 수용자의 자살 가능성이 높은 것을 파악하고 예의주시하며 수시로 상담을 실시해 교정사고를 예방했다.

광주

정읍교도소 교도 김민석



기동순찰 근무자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빌라 화재를 목격해 즉시 119에 화재신고를 한 후 해당 빌라로 달려가 출입문을 개방

하고 2·3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화재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전파했다. 대피를 독려하고 화재에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방지하여 교정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고 교정조직 발전에 기여했다.

가족·동료와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은 교정인

이색 경험 하고 싶은 교정인
모두 모두 여기 모여라!

참여 안내

월간 교정과 함께 봄맞이 추억을 만드세요.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이벤트와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아래 콘텐츠에 함께하고 싶다면, 엽서나 이메일,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하세요!

* 소원을 말해봐

하고 싶은 일, 꿈꿔왔던 일 사연 신청하면
<교정>이 들어드려요! 누구와 함께할까요?
친구, 동료, 가족? 신청만 하세요!

* 교정이 쓴다

내 아이 학급에 간식을 선물해드립니다.
<교정>이 마련한 특별한 날, 교정인은
즐거이만 하세요!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바로가기

*월간 <교정>에 의견을 보내주시거나 참여 신청을 원할 경우 엽서 또는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을 보내주세요.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정된 분께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의 삶을 혁신하는 힘!

규제샌드박스

